

# 『돈 쓰기의 예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간단한 선택들』

## 심층 분석 보고서

### 서문: Introduction

모건 하우절(모건 하우절)은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Money)』으로 잘 알려진 저술가로, 돈과 인간 행동의 관계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인물입니다 <sup>1</sup>. 2025년에 출간된 신작 『The Art of Spending Money』 (이하 『돈 쓰기의 예술』)에서 하우절은 이전 저서들이 다루었던 “돈을 모으는 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을 쓰는 법”, 즉 돈을 활용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구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up>2</sup>. 하우절은 이 책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가 단순한 수치나 공식이 아님을 강조하며, 돈을 어떻게 써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돈을 쓰는 행위가 장부나 숫자보다는 심리, 질투, 사회적 욕망, 정체성, 불안 등의 문제와 훨씬 더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쓰면 더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sup>3</sup>

위 인용에서 드러나듯, 『돈 쓰기의 예술』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면서 “돈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저자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sup>4</sup>. 하우절은 돈을 버는 기술뿐 아니라 **버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별개의 기술**이며, 후자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sup>5</sup>. 많은 재테크 서적들이 “더 벌고, 불리고, 성장시키는 법”에 집중하는 반면 <sup>2</sup>, 이 책은 **더 조용하고도 어려운 질문**, 즉 “주어진 돈을 활용해 어떻게 의미있는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다룹니다 <sup>2</sup>. 하우절은 이 질문에 정답이 될 만한 일률적인 예산법이나 투자 공식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마다 다른 **소비 성향의 이유, 어떤 소비가 진정한 행복을 주고 어떤 소비가 허망함을 남기는지**, 그리고 **돈을 통해 시간, 자유, 평온을 얻는 법** 등에 대한 심리적 통찰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탐구합니다 <sup>6</sup>.

하우절의 문제는 이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쉽고 간결하며 이야기 중심적입니다** <sup>7</sup>. 책에는 총 21개의 짤막한 장이 담겨 있으며, 각각의 장마다 일상의 일화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돈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전달합니다 <sup>7</sup>. 덕분에 독자는 미끄러지듯 책장을 넘기며 밑줄긋고 메모하고 싶어지는 문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sup>8</sup>. “**돈을 쓰는 행위는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다**”는 하우절의 주장처럼 <sup>4</sup>, 그는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숫자나 스프레드시트상의 최적화보다 인간관계, 감정, 비교심리 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예술적이고 심리적인 면이 크다고 역설합니다. 예컨대, 하우절은 우리가 흔히 돈을 통해 **자유나 행복을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인정(Validation)을 쫓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sup>9</sup>. 그리고 그러한 “**남들 시선 의식하기 게임**”이 우리 소비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책 전반에 걸쳐 파헤칩니다 <sup>4</sup>.

이 책의 도입부에서는 저자의 메시지를 집약하는 인상적인 일화가 소개됩니다. **한 여성 환자가 시력교정 수술(LASIK)을 받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녀는 안경을 벗고 더 예뻐지면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더 존중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sup>10</sup>. 수술은 성공하여 시력은 좋아졌지만, **그녀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애정도, 동료의 존중도 그대로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군요”라고 말합니다 <sup>10</sup>. 즉,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던 것입니다.** 하우절은 돈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자유나 행복을 얻고자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많은 경우 **우리가 진정 바라던 것은 타인의 사랑과 존중이었다고 일깨웁니다** <sup>10</sup> <sup>11</sup>. 이 **LASIK 일화**를 통해 독자는 “돈을 써서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 과연 나의 삶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인가”라는 책의 핵심 화두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우절은 이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얻지 못한 것만큼 최악은 없다**”는 격언을 소개하며 <sup>12</sup>, 부와 성공을 거머쥔 후에도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돈 자체는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지는 못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실제로 하우절은 수년간 금융업계와 투자 세계를 취재하고 연구하면서 부자들이 때로는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고백합니다. 영국의 명재상 윈스턴 처칠이 “자신은 술에게 빼앗긴 것보다 술로부터 얻은 게 더 많다”고 말한 데 비유하며, 하우절은 “돈으로부터 얻는 행복보다 돈이 우리에게서 앓아가는 것이 더 많은” 부자들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sup>13</sup>. 평생 돈만 쫓느라 정작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행복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것을 요긴하게 활용해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sup>13</sup>. 그는 단언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돈과 행복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느냐이다” <sup>14</sup>.

요컨대, 『돈 쓰기의 예술』의 서문에서 하우절은 돈과 행복의 심리학을 탐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돈을 버는 법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진짜 세상에서 돈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기에 그 쓰임새를 아는 일은 전혀 다른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sup>15</sup>. 이를 위해 책 전반에 걸쳐 하우절은 다양한 예화를 동원합니다. 명품 가구 박람회에서 값비싼 의자를 산 부자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대학 시절 호텔 밸레파킹 아르바이트를 하던 하우절은 어느 날 한 부자가 “의자 하나에 2만1천 달러나 썼다”며 허세 섞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sup>16</sup>. 하우절과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짓자 그 부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돈이 있으면 원래 이런 걸 쓰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sup>17</sup>. 이 말을 들은 어린 하우절은 “나도 돈을 벌면 저렇게 못생긴 의자를 사는 데 써야 한단 말인가? 그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줄까?” 자문했고, 곧 그 부인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회상합니다 <sup>18</sup>. 하우절은 이 일화를 통해, 사회가 부자에게 ‘이렇게 써야 한다’고 부여한 규범이 종종 부자들마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사회가 돈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 삶을 위해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sup>19</sup>, 남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이나 진열장에 속아 자신의 돈을 쓰지 말라고 독자를 일깨웁니다.

결국 서문에서 하우절이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돈은 궁극적으로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는 각자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sup>20</sup>. 돈으로 멋진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진정한 행복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공식을 찾는 것입니다. 하우절 스스로 “돈과 행복의 방정식을 자신의 삶에서 실험한 결과를 성찰한 책”이라고 밝힌 만큼 <sup>21</sup>, 이 책은 숫자나 투자 기법 대신 삶의 철학과 심리를 다루는 돈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편, 『돈 쓰기의 예술』은 출간 직후 독자들과 평론가들로부터 폭넓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우절의 통찰력과 스토리텔링에 다시 한 번 공감했고, “돈을 잘 쓰는 일이야말로 궁극의 금융 기술”이라는 책의 주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up>5</sup>. 다만 몇몇 평자는 이 책이 하우절의 전작만큼 강렬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지혜들을 재확인시켜주는 느낌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sup>22</sup>. 실제로 오랫동안 하우절의 글을 읽어온 독자들은 책의 일부 내용에서 데자뷔를 느낄 수 있습니다 <sup>23</sup>. 그러나 이러한 반복을 하우절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도라도,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거듭 상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sup>24</sup>. 한 리뷰어의 말처럼, 아는 것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중요한 원칙들을 일깨워주는 부드러운 자극”으로 이 책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sup>25</sup> <sup>26</sup>. 특히 돈과 행복에 관한 통찰은 알기는 쉬워도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법이기에, 이 책은 독자에게 끊임없이 스스로의 소비를 성찰하고 바른 방향으로 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리하면, 『돈 쓰기의 예술』의 서문은 돈을 쓰는 문제를 둘러싼 핵심 주제들을 제시하며 독자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킬 준비를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돈을 쓰는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 돈의 최고의 가치는 시간과 자유를 살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부와 진짜 행복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 등 책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들이 서두에 암시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장의 내용을 따라가며, 하우절이 전하는 메시지와 통찰, 그리고 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1장.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All Behavior Makes Sense with Enough Information)

「모든 행동에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이해된다」는 도발적인 챕터 제목처럼, 1장에서는 사람들의 돈 씀씀이 뒤에 숨은 각자의 사연과 논리를 들여다봅니다. 하우절은 “모든 행동은 충분한 정보를 알게 되면 말이 된다(All behavior makes sense with enough information)”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sup>27</sup>, 겉보기에 비합리적이거나 엉뚱해 보이는 소비

행동이라도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돈을 쓰는 문제에서 “정답”이나 “정석”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가 걸어온 인생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의 합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우절은 먼저 개인별로 다른 “돈에 대한 이야기(story)”를 언급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스토리, 즉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며,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sup>28</sup>.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사며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은 여행에 돈을 써야 삶이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부모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아 “혹독하게 아끼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여기고, 반대로 어린 시절 결핍을 겪은 이는 “원하는 것을 즉시 소비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돈에 얹힌 고유한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 형태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장에서 하우절은 타인의 소비를 함부로 판단하는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쓸까?” 의아해하며 남의 소비를 평가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한 가지 재미있는 예로 코미디언 조지 카린(George Carlin)의 말을 인용합니다. 카린은 “나보다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은 멍청이처럼 보이고,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치광이처럼 보인다”고 농담했는데 <sup>29</sup>, 하우절은 바로 이 점이 타인의 돈 쓴 씀이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방식과 다르면 우리는 쉽게 ‘틀렸다’고 단정하지만, 사실 각자 처한 상황과 경험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sup>29</sup>. 즉 “돈을 어디에 써야 한다”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으며,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맥락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우절은 위탁가정(foster care) 분야의 속담까지 인용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다 말이 된다”는 문장으로, 아이들의 문제 행동조차 그들의 과거 환경과 경험을 알면 이해되듯이, 사람들의 소비 습관도 그들이 지나온 삶의 맥락을 알아야 비로소 이유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sup>27</sup>. 하우절은 이어서 “대부분의 소비에 대한 논쟁은 결국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떠드는 데 불과하다”고 통찰합니다 <sup>30</sup>. 한쪽은 어떤 지출이 낭비라고 느끼지만, 다른 한쪽은 그 지출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각자는 자신만의 과거 경험의 산물”이므로 누가 옳고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up>30</sup>.

“건강한 재무 철학이란 다른 이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행동은 충분한 정보를 알면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다.” <sup>31</sup>

위는 하우절이 제시한 이상적인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즉, 우리는 각자 돈과 관련해 “나만의 이유”를 가지므로 남의 소비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동시에 내가 왜 그런 소비를 하는지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우절은 실제 예로 흔히 벌어지는 “돈 쓸 가치 논쟁”을 들려줍니다. 누군가는 “취미에 그렇게 돈을 쓰는 건 어리석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비싼 집에 사는 건 낭비”라 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무엇에 돈을 쓸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대부분의 논쟁은, 단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방과 대화가 어긋난 채 말싸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sup>30</sup>. 각자가 다른 우선순위와 상처,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하우절은 돈 문제에 있어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개인적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금융 전문가가 뭐라 조언하든 간에, 결국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고 행복을 주는 소비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재무설계 전문가 팀 모리의 말을 인용해 “퍼스널 파이낸스는 파이낸스(재무)라기보다는 퍼스널(개인적)한 것이다”, 즉 개인 재무관리에서 ‘개인’이 ‘재무’보다 우선한다는 유명한 격언을 소개합니다 <sup>32</sup>. 누구도 “네 돈을 이런 데 써야 해” 혹은 “그런 데 돈 쓰면 어리석어”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각자가 자신에게 무엇이 행복과 성취를 주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sup>33</sup>. 가령 어떤 이는 비싼 차를 살 돈으로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여행을 택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여행보다 안정된 내 집 마련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며, 오직 개인의 만족이 기준입니다.

1장의 메시지는 결국 돈에 대한 열린 마음과 공감으로 요약됩니다. 하우절은 독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소비를 선불리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상상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돌아봐, 그것이 진정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라”고 조언하지요.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 자기 자신 모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돈을 쓰는 방식에도 이유가 있다는 이 장의 교훈은, 이후 장들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판단하기 전에, 서로 다른 배경을 인정하

라’는 일종의 윤리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은 이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팟캐스트 리뷰는 이 부분을 가리켜, “각자의 삶의 경험이 돈 이야기를 좌우한다는 통찰 – ’모든 행동은 충분한 정보를 알면 이해된다’ – 가 책의 핵심 교훈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sup>34</sup>.

결국 1장을 통해 독자는 돈을 둘러싼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돈 문제에 정답은 없다는 깨달음, 그리고 ‘내 방식’과 다른 ‘남의 방식’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이 책 전체의 기조를 이루며, 다음 장들에서 더욱 풍부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 2장.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장의 제목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는 직역하면 “잠시 제발 주목해주시겠습니까”라는 의미로, 흔히 사람들이 주변의 관심을 끌 때 하는 말입니다. 하우절은 이 챕터를 통해 우리의 ‘관심(Attention)’이 어떻게 행복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에 집착하는지가 돈을 쓰는 방식과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합니다.

이 장에서 하우절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행복의 요소를 놓치고 있는가?” 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와 지표, 또는 남들의 시선에 주의를 빼앗겨 진짜 자신에게 의미있는 소비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우절은 우리의 한정된 ‘관심’ 자원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일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식시세나 경제 뉴스를 들여다보며 사소한 재산 증감에 일희일비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남들이 SNS에 자랑하는 소비생활에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자신도 원가를 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우절은 이러한 경향을 경계하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끄는 역설”을 지적합니다. 즉, “어떤 문제에 쏟아지는 관심의 정도는 그 문제의 중요도와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sup>35</sup>. 우리가 신문 머리기사나 인터넷 이슈에 온 정신을 빼앗겨 걱정하고 분노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가계재무 상태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같은 본질적인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일종의 통찰입니다.

하우절은 또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과 미디어, 그리고 타인들의 소비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광고주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과장되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SNS 피드는 타인의 화려한 소비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과 귀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 소비 욕구도 조절됩니다. 만약 남들의 소비 행태에 지나치게 주목하면, 나도 모르게 ‘남 따라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지 고민할 겨를을 잃습니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가치 – 이를테면 가족과의 시간, 건강, 배우는 즐거움 등 – 에 집중하면, 굳이 남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소비를 하지 않아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주의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하우절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로 숫자나 계산에만 집착하는 것을 꼽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가계부의 지출 항목만 노려보면서 가장 저렴하게 사는 데 골몰하지만, 그러느라 정작 그 소비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는 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충동적인 사람은 순간 눈에 띄는 것에만 끌려 돈을 쓰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주의력이 없으면 우리의 소비는 방황하거나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우절은 삶의 소음과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가치에 주목할 것을 권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의식적으로 관심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새 차나 새 스마트폰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면, 잠시 그것들을 잊고 지금 손에 쥔 돈으로 무엇이 내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들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이 평소 어디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지요.

한편, 이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돈 문제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관심’ 문제인 사례들도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 늘 돈이 모자라 고민인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그는 아마 끊임없이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할인 쿠폰을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우절은 묻습니다. “당신은 정작 어디에 돈을 쓰고 싶은지, 그 돈으로 얻고자 하는 삶의 모습에 관심

을 가져본 적 있는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테크닉에만 주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왜 그렇게까지 아꼈는지 방향성을 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돈을 쓰는 목적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이 장에 대해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자꾸만 작은 돈 아끼기에 집착하느라 큰 행복을 놓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 재무 심리 팟캐스트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며, “기대치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관심의 초점을 재조정하는 것이 행복과 부의 지름길”이라는 논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sup>36</sup>.

정리하면, 2장에서 하우절은 우리의 한정된 ‘주의력’ 자원을 현명하게 배분하라고 조언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재무 세부 사항이나 타인의 소비행태에 과도한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자신의 행복에 핵심적인 것들에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곧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일이며, 다음 장에서 다룬 ‘진정 행복한 사람들의 태도’로 이어지는 기초가 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목하는 법, 그리고 사소한 재정적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깨우친다면, 우리는 비로소 돈을 도구로써 제대로 활용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우절은 이 장을 통해 “당신의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이 앞으로의 장들에서 차근차근 밝혀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 3장.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 (The Happiest People I Know)

3장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에서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합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 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특히 ‘행복’과 ‘부(富)’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제안합니다.

하우절은 먼저 행복과 소유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우절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 꼭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남성 10명에게 이혼이 13번이나 있었다”는 통계를 소개하며 <sup>37</sup>, 높은 재산이 반드시 인생의 만족이나 관계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 미국의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일화를 들려주는데, 닉슨은 “내가 만나본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sup>38</sup>. 이런 예시들은 돈과 행복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우절은 ‘만족’(contentment)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습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sup>39</sup>. 즉,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더 바라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면 행복하지 않고, 설령 소박한 삶일지라도 현재에 충분함을 느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절대치가 아니라 기대치에 달려있다’는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지 스스로 묻지 않게 되었을 때 찾아온다” <sup>40</sup>. 다시 말해, 끊임없이 “무엇이 더 있으면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한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어느 순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대 관리’입니다. 하우절은 기대치(expectations)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당신의 기대가 소득보다 더 빨리 자라난다면 절대 돈에 만족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sup>40</sup>. 소득이 늘어도 눈높이가 더 높아져버리면 언제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 행복해지려면 욕망의 크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는 이를 부(富)의 새로운 정의로도 제시합니다. 하우절이 말하는 “최고의 부의 척도는 가진 것에서 원하는 것을 뺀 값”이라는 문장은 유명합니다 <sup>41</sup> <sup>42</sup>. 내가 가진 것보다 바라는 것이 적으면 부유한 삶이고,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원하는 게 더 많으면 가난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대목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리뷰는 “하우절이 상기시킨 최고의 진리는, 부는 ‘내가 가진 것 -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이 간극이 작을수록 인생이 풍요롭게 느껴진다”고 평했습니다 <sup>5</sup>.

이 장에서는 또한 ‘행복의 지속성’에 관한 통찰도 다릅니다. 하우절은 사람들이 흔히 “행복”을 순간적쾌락이나 둘뜬 기분으로 착각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의 흥분(buzz of happiness)’은 “재밌지만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 감정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sup>43</sup>. 대신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만족감(contentment)’, 즉 더 깊고 지속적인 평온함이라는 것입니다 <sup>43</sup>. 많은 이들이 행복을 추구한답시고 끊임없이 새 차, 새 기기, 새 경험을 쫓지만 잠깐의 설렘 후엔 금세 무덤덤해집니다. 하우절은 이를 두고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감정을 쫓는다. 금세 사라지는 행복의 흥분을 쫓

다가, 더 오래가고 깊은 만족감을 놓치곤 한다”고 날카롭게 짚습니다 <sup>43</sup>.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은 즐거운 들뜸이 아니라 평온한 만족”이라고 강조하지요 <sup>43</sup>. 이는 행복의 질과 지속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로, 독자들에게 일시적 만족과 지속적 만족을 구분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우절은 이 장을 통해 **행복의 조건을 재정의해줍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 생각했던 많은 것들 — 높은 수입, 고급 차, 큰 집 — 은 실제로 손에 넣으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갖지 못했을 때는 간절해 보이던 것들이, 일단 손에 넣으면 사실 별 것이 아닐 수 있다”며, **한 번 성취된 외적 조건들은 빠르게 익숙해져버리는 인간 심리를 언급합니다** <sup>44</sup>. “없을 땐 중요해 보이지만, 막상 가지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식이지요 <sup>44</sup>. 이는 행복을 ‘더 가지는 것’에서 찾으려는 태도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대신 하우절은 **행복은 얼마나 가지느냐보다는 얼마나 더 바라지 않을 수 있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합니다** <sup>45</sup> <sup>46</sup>.

이러한 메시지는 많은 독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통찰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sup>38</sup>. 어떤 독자는 이 대목을 읽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더 이상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할까’를 묻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후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책 속 문장 — “진짜 행복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찾아온다” — 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sup>40</sup>.

한편,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 리뷰도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책이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 더 자연스럽게 와닿을 조언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sup>47</sup>. 실제로 “갖고 싶은 것을 줄여라”라는 조언은 최소한 기본적 경제적 안정이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기대치를 낮춰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지요 <sup>47</sup>. 그러나 하우절의 의도는 모든 수준의 사람들에게 **돈과 행복의 본질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장에서 부유층 독자들에게는 **겸손과 자족**을 권하며, 아직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독자들에게도 행복이 순전히 돈의 액수에 비례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적은 돈으로도 만족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은 돈에도 끝없는 불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례가 흔하지 않습니까? 하우절은 바로 그 점을 상기시키며, **행복의 키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진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3장의 클라이맥스**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행복의 최선의 척도는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뺀 값이다**.” <sup>48</sup> 이 간명한 공식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책의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하우절은 기대 관리와 만족이라는 주제를 3장에서 확실히 심어둠으로써, 이후 장들에서 논의될 욕망, 비교, 후회 등의 문제들을 풀어갈 단서를 제공합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현재에 대한 만족이며,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 장의 깨달음은, 뒤이어 나올 장들에서 독자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기초가 됩니다.

## 4장. 당신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 (Everything You Don't See)

4장 「당신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돈과 행복의 요소들에 주목합니다. 하우절은 이 장을 통해 **타인의 부와 성공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전환시켜 주는데요**.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거나 평가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우선, 하우절은 ‘보이지 않는 부(富)’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길에서 페라리 스포츠카를 보면 “저 사람 부자구나”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우절은 “페라리를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페라리를 살 돈이 있었는지는 보여도, 그 차를 사느라 통장에 돈이 얼마나 비었는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것은 돈을 쓴 흔적이지, 돈을 모은 흔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부란 보이지 않는 것 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책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치품과 생활 수준은 보여도, 통장 잔고나 투자 포트폴리오, 혹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여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칫 남의 겉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거나 불필요한 경쟁에 뛰어들곤 하는데, 이는 보이는 부분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함정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실제 부자의 삶 속에 숨은 모습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빛에 쫓기거나 불안에 시달릴 수 있고, 반대로 소박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상당한 자산과 안정을 누리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즉, “부유함”은 종종 그 사람의 외양이 아니라 그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우절은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집의 외관이 아니라 집 안에서의 삶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식의 조언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집 밖이 아닌 집 안을 자랑하라(**Show off the inside of your house, not the outside**)”는 문장을 통해 <sup>49</sup>,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 실제 자신의 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중시하라고 조언합니다. 값비싼 정원 조경이나 호화로운 인테리어로 이웃의 감탄을 사는 것보다, 비록 남들이 볼 수 없더라도 내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행복이야말로 진짜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남들이 박수를 보내는 소비(예컨대 멋진 차, 큰 집)보다, 남들은 몰라도 내 삶에 평화와 편의를 주는 소비(예컨대 여유 시간, 건강, 안정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비교와 질투의 위협**이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보이는 성공’에만 시선을 빼앗겨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우절은 “남들이 가진 것에 질투하는 건, 당신의 중요한 판단을 낫선 이들에게 맡겨버리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sup>50</sup>. 이는 질투심이란 감정이 얼마나 우리의 주체성을 잃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문장입니다. 남의 화려한 소비를 보고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점을 남이 결정하도록 내맡기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이란, 실제로는 삶의 전모를 알 수 없는 거의 타인에 불과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SNS나 주변의 부자 소식은 삶의 일부 단면만을 보여줄 뿐인데, 우리는 그 조각 정보를 토대로 상상으로 채워넣으며 부러워하거나 낙담한다는 것이죠. 하우절은 “남들에게서 보이는 10%의 모습만 가지고, 나머지 90%까지 행복할 거라고 추측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을 합니다. 남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민, 혹은 희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동경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우절은 **비교의 함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딱 조금 더 잘사는 집단”을 바라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sup>51</sup>. 소득이 5000만 원이면 1억 원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1억이면 5억을 부러워하는 식입니다. 항상 사회경제적으로 바로 위 계층을 흡모하는 시선을 유지하는 한,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남만 바라보다 보면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힘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 부러워하는 건 당신의 사고력을 남에게 외주주는 것과 같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질투의 어리석음을 꼬집습니다 <sup>50</sup>. 그 시간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훨씬 이롭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직시할 수 있을까요? 하우절은 겸손과 성찰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우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쓰지 않을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독립(**Independence**)의 가치도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즉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커다란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sup>52</sup>. 실제로 하우절은 “남을 (특히 모르는 사람을) 신경쓰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신 재무제표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일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sup>52</sup>. 이는 6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주제이지만, 여기서도 핵심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자유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우절은 “**좋은 삶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달려 있다**(**So much of a good life is about what didn't happen**)”는 흥미로운 명제를 제시합니다 <sup>53</sup>. 처음 들으면 역설적이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보면 깊습니다. 이는 좋은 삶은 화려한 사건이나 성취보다, 오히려 “일어나지 않은” 문제와 불행—예컨대 파산하지 않은 것, 큰 병 걸리지 않은 것, 가족과 불화를 겪지 않은 것—들이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sup>53</sup>. 이런 것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주변에 문제가 없는 평온함은 사건 부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큰 행복의 기반이지요. 우리는 남의 인생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이룬 것만 보지 말고, 내 삶에서 지켜낸 것들에 감사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예컨대 사치품은 없을지라도 부채 없이 살고 있다면, 그건 “일어나지 않은 파탄”이기에 충분히 축복할 일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장은 독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일깨우며, 겸손한 시선을 갖도록 합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실은 남모를 불안을 안고 있을 수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우리에게 표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도 겉모습 이상으로 깊이 들여다보라고 권유합니다. 한 독자는 이 부분에 대해 “남들의 페이스북에 보이는 행복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 이면의 현실을 상상해보게 되었다”며,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

조해하던 습관을 크게 고쳤다고 평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각자의 싸움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타인에 대한 부러움과 경쟁심이 줄어들고 자신만의 속도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4장에서 하우절은 “본질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고전적인 진리를 돈과 행복의 맥락에서 재확 인시켜 줍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 것, 보이지 않는 참된 부와 행복을 추구할 것, 그리고 남의 보이지 않는 배경을 헤아리며 설불리 비교하지 말 것. 이러한 깨달음은 독자들이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라는 주제로 심화된 논의가 이어집니다.

## 5장. 가장 값진 자산: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 없음 (The Most Valuable Financial Asset Is Not Needing To Impress Anyone)

5장 「가장 값진 재무 자산은 아무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최고의 자산이라고 선언합니다 <sup>52</sup>. 이는 다소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하우절은 이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으로 풀어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 삶의 벨런스시트에 엄청난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챕터에서 하우절은 우선 우리 돈 씀씀이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남을 의식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비싼 차, 명품 시계, 큰 집 등을 갖고 싶어하지만, 솔직히 따져보면 그 이유 중 큰 부분은 그것들을 통해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은 멋진 물건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은 남들의 존중, 칭찬, 그리고 관심이다” <sup>54</sup>. 우리의 소비욕구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누구 볼 사람 없는 곳에서 굳이 명품백이나 슈퍼카를 사고 싶어할까요? 결국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많은 과소비와 허영의 근본 동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존중을 얻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빨리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며, 존경심을 사기 위한 값비싼 방법이다” <sup>55</sup> 고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대개 실망만이 뒤따른다고 덧붙이지요 <sup>55</sup>. 이는 1장에서 소개된 “보여지는 부와 실제 행복은 별개”라는 주제와도 이어집니다만,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의 무의함’을 비판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본문에서도 “남들에게 네가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은 빠르게 파산하는 길이자 존경을 얻기 위한 값비싼 대가다. 대부분 실망으로 끝난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sup>56</sup>. 이 문장은 출간 직후 여러 서평과 SNS에서 인용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up>57</sup>. 그만큼 많은 사람이 공감하거나 뜨끔해한 부분인 셈입니다.

하우절은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상태 자체가 개인의 재무제표에 등재될 만큼의 자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sup>52</sup>.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같은 전통적 자산만 기록되지요. 그러나 하우절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필요가 없는 것”을 가리켜, “당신의 개인 재무제표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sup>52</sup>.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합니다. 남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음이 왜 자산일까요? 이는 그만큼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무습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의식한 소비는 끝도 없고, 결국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보다 흘뜨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절약이나 투자 등 장기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허영심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재산을 불려주는 요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남 비교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우니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러한 정신적 여유와 자율성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귀한 가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의 자신 이야기를 종종 꺼냅니다. 그는 한때 멋진 차와 고급 물건에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결국 그것들이 원하는 만큼의 존경이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깨달음을 공유합니다. 대신 진짜 존경은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나 업적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존중과 감탄을 받는다면, 더 이상 번쩍이는 물건들에 돈 쓸 유인이 확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sup>58</sup>. 이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비싼 소품들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우절은 낯선 이들, 특히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일침을 놓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에게 당신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작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쓰지만 남들은 우리를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자기 삶 살기 바쁘다는 통찰입니다. 그는 “아무도 당신에 대해 당신만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No one is thinking about you as much as you are)”는 문장을 덧붙이며 <sup>59</sup>, 자기만의 착각에서 벗어날 것을 권합니다. 쓸데없이 남 눈 의식하느라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문장은 현대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조언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요컨대, 5장의 결론은 ‘남 눈치 보지 않을 자유’의 가치입니다. 하우절은 이를 일종의 독립(independence)으로 간주합니다. 경제적 독립(FIRE 열풍 등)만큼이나 심리적 독립, 즉 사회적 승인에 얹매이지 않는 상태가 행복과 재정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심리적 독립을 가진 사람은 재정적으로도 여유를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물건에 돈을 쓰지 않고, 남을 향한 과시적 소비 대신 자신에게 의미있는 곳에만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마음이 편해졌다”거나 “남들에게 잘 보이려던 내 습관을 반성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보여주기식 소비는 실망만 남는다”는 대목과 “최고의 자산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많은 리뷰에서 인용되며 화제가 되었지요 <sup>56</sup> <sup>52</sup>. 한 금융 칼럼니스트는 이 챕터를 두고 “하우절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저축은 ‘체면 비용’을 아끼는 것임을 일깨운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이나 소득이 늘어도 체면이나 과시 때문에 지출이 덩달아 늘면 부가 쌓이지 않는데, 그런 ‘남을 위한 지출’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금융적 자유에 한층 가까워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5장은 재무와 심리의 교차점을 예리하게 짚은 부분입니다. 하우절은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의 핵심으로 의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더 좋은 쿠폰 찾기나 투자의 귀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상을 신경쓰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돈을 지키고 불리는 지름길이라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이는 독자들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킵니다. 이후의 장들에서 하우절은 이러한 자유를 누렸을 때 얻게 되는 구체적 이점들 – 예컨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 을 더 깊이 탐구해나갑니다.

## 6장.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What Makes You Happy)

6장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서는 제목 그대로 개인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선 장들에서 하우절은 돈과 행복에 대한 일반 원칙들 – 만족, 비교하지 않기, 체면에서 자유로워지기 등 – 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각자 자기만의 행복 요소를 파악하고, 소비를 그에 맞게 조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마디로, “남들이 정해준 행복 공식이 아닌, 나만의 행복 공식을 찾아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우절은 우선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구도 “~에 돈을 쓰면 행복해진다”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sup>33</sup>. 어떤 이는 여행에 돈을 쓸 때 가장 행복하고, 누군가는 집에 투자할 때 마음이 놓이며, 다른 이는 또 취미나 자기계발에 돈을 써야 삶에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우절은 “누구도 당신에게 돈을 어디에 써야 한다고 지시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sup>33</sup>.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드는지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우절은 자신을 관찰하고 실험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소비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줬는지, 어떤 소비는 후회를 남겼는지 관찰해보라”는 것입니다 <sup>60</sup>. 그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종의 행동 분석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1년간 자신이 큰 돈을 쓴 항목들을 떠올려보고, 그 중 진심으로 잘했다고 느끼는 소비와 다시 돌아간다면 안 했을 소비를 구분해보라는 식이지요.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유의미한 소비”와 “무의미한 소비”의 패턴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또 “당신을 실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극대화하라”고 조언합니다 <sup>49</sup>. 이는 우리 각자가 행복의 트리거를 스스로 발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재미있는 비유로 음식 취향을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하고, 당신은 멕시칸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누가 옳고 그른 건 아니다. 단지 기호의 차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sup>33</sup>. 그런데 유독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보편적인 정답이 있는 양 타인을 판단하려 듭니다. 하우절은 “개인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식성처럼 주관적인 것이므로, 돈 쓰는 문제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sup>33</sup>. 각자 자신에게 맞는 소비 방식이 있고, 그것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통찰을 통해 독자들은 남들 기준에 맞춰 소비하거나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으며, 자신만의 행복 우선순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하우절은 **행복을 위한 소비와 착각에 의한 소비**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지 잘못 짚고 돈을 쓰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더 나은 삶이 어떤 모습일지 혼란스럽다면, 그냥 ‘돈이 더 많은 삶’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십상이다”라고 언급합니다 <sup>61</sup>. 즉, 스스로 진정 원하는 바를 모를 때 사람들은 일단 돈 자체를 더 벌면 나아지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다른 무언가(존중, 안정 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sup>62</sup>. 실제로 하우절은 “돈과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은, 당신이 실제로 원했던 존중과 명예 같은 것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sup>63</sup>. 그러므로 **자신이 추구하는 소비나 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헛다리를 짚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덕목은 **자기만족(Self-fulfillment)**입니다. 하우절은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에게 진짜 중요하고 즐거운 것이라면 그게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수집품이라도, 그 취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거기에 돈을 써도 좋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회적으로 부러움을 살 만한 소비라도 자신에게 의미 없으면 굳이 따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Personal finance is more personal than it is finance**” – 개인재무는 재무라기보다 **개인적**이라는 그 유명한 명제입니다 <sup>64</sup>. 이 문장은 이 책 전반에 흐르는 모토이기도 한데, 특히 이 6장에서 독자들에게 강하게 와닿습니다. 한 독자는 “이 부분을 읽고 남들이 다 좋다는 자동차 모델 대신 내가 정말 운전하며 즐거울 수 있는 차를 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남들이 다들 해외여행에 돈을 쓸 때, 나는 집에서 보내는 휴식에 행복을 느낀다면 굳이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지요. 이런 반응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행복의 형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독자들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우절은 독자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팁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sup>65</sup>.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컨대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기 내면에서 우러난 좋아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갖는 행위”에 대한 욕망(광고나 유행에 의한)인지 구분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의식하면, **정작 내 취향이 아닌데 일시적인 욕망 때문에 돈을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우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것**”을 권하기도하는데, 이는 16장 「Try Something New」에서 더 자세히 다를 주제지만, 이 장에서도 예열 차원에서 언급됩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발견하라는** 것이죠. 혹시 돈 쓰는 패턴이 항상 똑같고 지루하다면, 조금 다른 곳에 써보며 의외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조언입니다.

정리하면, 6장은 독자에게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스스로 답하라**”는 과제를 줍니다. 남들이 정해준 정답(예: ‘집 사면 행복해’, ‘명품 가지면 성공이야’)을 따르기보다, 나의 가치관과 기쁨의 원천을 발견해 그에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뛴 채 남이 정한 행복을 좇다 허탈해하기 일쑤이니까요.

이 책을 읽은 한 평론가는 이 장을 두고 “하우절은 돈을 매개로 자아 성찰을 권한다. 우리는 소비 습관을 통해 자신이 진정 뭘 원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결국 내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우절은 그 점을 일깨워 주며,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복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합니다. 이렇게 보면, 6장은 재무조언서라기보다 **삶의 철학서**에 가까운 풍모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이야말로 현명한 재무관리의 근본이라는 것이 하우절의 주장이지요.

이제 다음 7장에서는 행복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부자**’와 ‘**부유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텐데, 6장에서 다진 “개인적 행복 우선”이라는 토대는 그 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 7장. 부자와 부유한 사람 (The Rich and the Wealthy)

7장 「**부자와 부유한 사람**」에서는 제목이 암시하듯 ‘**Rich(부자)**’와 ‘**Wealthy(부유한)**’의 차이를 조명합니다. 한국어로는 두 단어 모두 “부자”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우절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Rich**는 흔히 “**많이 버는**” 혹은 “**겉으로 돈을 많이 쓰는**” 상태를 뜻하고, **Wealthy**는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한**” 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장에서 하우절은 ‘**보이는 부**’와 ‘**보이지 않는 부**’를 대조하며,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후자임을 강조합니다.

우선 하우절은 “Rich는 눈에 보이지만 Wealth는 보이지 않는다”는 관찰을 내놓습니다. 예컨대 길거리에서 비싼 스포츠카를 탄 사람은 곁보기엔 Rich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Wealthy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카는 그가 돈을 많이 썼다는 증거일 뿐, 그의 저축액이나 자산 내역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소득이 높지만 소비도 과해서 저축이 없는 ‘한계 부자’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곁으로 평범한 차를 몰지만 막대한 투자자산을 가진 ‘숨은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우절은 이 점을 강조하며, “부유함(wealth)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에, 보여지는 부와 혼동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 책 전반을 끼뚫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부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는 하우절이 전작 『돈의 심리학』에서도 강조했던 바인데, 여기서도 보다 생활밀착형으로 설명됩니다. Rich한 사람은 예컨대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니고 SNS에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Wealthy한 사람은 그런 것을 과시하지 않아도 언제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하우절이 든 사례 중 유명한 것이 운송 업계 억만장자였던 로드랜드 재벌의 일화입니다. 그 재벌의 손자가 어느 날 할아버지 차고에 늘 고급차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차가 있으니 정말 행복하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니, 사실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던 때가 더 행복했다”고 대답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실제 인명이 아니라 가상의 예일 수도 있지만, 맥락은 그러합니다). 이는 부와 행복의 단절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하우절은 이를 통해 부유함(wealth)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복잡한 삶과 비교, 불안이 따를 수 있는데, 진정한 부유함은 단순하고 자신만의 만족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우절은 또한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를 현대사회 소비문화 속 사례로 설명합니다. 현대인은 소득이 오르면 자연히 지출도 같이 늘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보너스를 받으면 고가 물건을 사며, 승진하면 생활수준을 높여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은 곁보기엔 Rich하지만 저축이나 투자로 미래 부를 쌓지 못하므로 Wealthy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나도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차액을 축적하는 사람은 곁보기에는 평범해도 조용히 부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하우절은 이렇듯 “안 보이는 돈”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Wealthy의 핵심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살 수 있지만 일부러 사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에는 이를 표현하는 멋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부를 나타내는 최고의 척도는 (내가 가진 것) - (내가 원하는 것)이다”<sup>65</sup>. 이미 이전 장에서 논의했듯, 이는 **만족과 욕망의 차이**로 부를 측정하는 독창적 공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같은 공식을 Rich와 Wealthy의 차이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ich는 단순히 (가진 것)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지만, Wealthy는 (가진 것 - 원하는 것)의 크기로 판가름 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욕망이 통제되어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Wealthy라면,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져도 욕망이 더 커서 늘 쫓기는 상태는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하우절은 **재정적 독립(Financial Independence)**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수입이어도 지출이 적어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소득이어도 빚과 고정지출에 놀려 독립적이지 못할 수 있지요. 하우절은 “독립은 부이다. 건강도 부이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이다”라고 말합니다<sup>59</sup>. 특히 “독립(자유)은 곧 부”, “남 눈치를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부”라는 표현들은 이 장뿐 아니라 책 전체의 결론부에서도 강조되는 문장입니다<sup>59</sup>. 이는 앞 장들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요컨대, 7장의 핵심 교훈은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Rich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결코 Wealthy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독자는 이 부분을 읽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고급 시계와 외제차에 월급을 탕진하며 부자 행세했지만, 정작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었다. 이제는 곁으로 초라해 보일지도 조용히 적금과 투자를 늘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장은 **부와 지위(Status)**의 관계도 건드립니다. 하우절은 **부를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권합니다**. 지위나 명성이란 것도 “보이는 성공”的 일부인데, 거기에 연연하는 한 재산을 모으기보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앞서 BookJelly 리뷰에서도 언급되었듯, 하우절은 “지위 경쟁은 끝없는 러닝머신”과 같아서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sup>66</sup>. 남보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를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은 잠시이고, 곧 그 위의 새로운 비교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위 게임에 빠지면 영원히 남과 비교하며 첫바퀴를 돌 뿐인데, 정작 쌓여야 할 부는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위(사회적 부자 이미지)를 쫓기보다 독립(실질적 부유함)을 쫓으라는 게 하우절의 충고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7장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조되고, 이어지는 8장과 9장 (Utility vs. Status, Risk and Regret)에서도 재차 언급됩니다.

정리하자면, 7장은 **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장입니다.** Rich vs. Wealthy의 대비를 통해, 진정 가치있는 부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거듭 상기시킵니다. **가시적인 부의 증표들(화려한 소비, 높은 소득)**에 집착하는 대신, 보이지 않지만 힘을 주는 것들(저축, 투자, 경제적 자유)에 집중하라는 조언입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예컨대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서”라고 답 하던 사람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로 답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변화가 하우절이 노리는 바일 것입니다.

이제 다음 8장에서는 이러한 Rich와 Wealthy 개념과 연결되는 ‘**효용 대 지위**’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7장의 깨달음은 8장에서 더욱 구체적인 소비 판단 지침으로 발전됩니다.

## 8장. 효용인가 지위인가 (Utility vs. Status)

8장 「**효용 vs. 지위**」는 소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동기를 대비시킵니다. ‘**효용(utility)**’은 어떤 물건이나 경험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주는 **쓸모와 만족**을 의미하고, ‘**지위(status)**’는 그 소비를 통해 얻는 **사회적 평가나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뜻합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모든 소비는 크게 보아 효용을 추구하느냐 지위를 추구하느냐로 나눌 수 있고,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선 하우절은 **우리의 소비 결정에 지위 욕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환기시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죠. 자동 차의 ‘**효용**’은 우리를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 **효용 못지않게 ‘지위’**를 신경씁니다. 무슨 브랜드인지, 얼마나 고급인지,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옷이나 시계의 효용**은 몸을 보호하고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지위 측면**에서는 명품로 고와 디자인이 주는 사회적 신분의 신호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현상을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동기로 소비하려는지 자각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그 물건을 사려는 이유가 그 물건이 당신에게 주는 효용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식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앞 장에서 말한 ‘**남에게 잘 보일 필요 없음**’의 원칙을 떠올려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효용이 주 동기인 소비를 선택하라고** 제안하지요.

이 장에서는 효용 중심의 소비가 가져오는 지속적 만족과, 지위 중심의 소비가 가져오는 일시적 쾌감을 비교합니다. 하우절은 “**어떤 물건을 효용 때문에 구매해서 느끼는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만, 지위 때문에 구매해서 얻는 쾌감은 일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sup>67</sup>. 예를 들어, 좋은 매트리스를 사는 것은 남이 보진 않지만 내 수면의 질(효용)을 향상시켜 매일 혜택을 줍니다. 반면 새롭고 비싼 명품백을 사는 것은 처음 며칠은 우쭐함을 줄 수 있어도, 곧 익숙해져버려 더 비싼 가방이 나올 때까지 그 기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구성의 차이**’를 하우절은 강조합니다. “**효용에서 오는 만족은 더 오래가고, 지위에서 오는 즐거움은 더 빨리 휘발된다**”는 것이지요 <sup>67</sup>. 그는 심지어 “내가 지속불가능한 것은 관심없다(I’m not interested in anything that’s unsustainable)”라고까지 선언하며 <sup>67</sup>, **지위 추구적 소비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멀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효용 중심의 소비는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반면, 지위 중심의 소비는 타인의 개성을 따라가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우절은 “**효용을 위해 물건을 사면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지위를 좇아 소비하면 오히려 남의 정체성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sup>68</sup>. 예를 들어, 정말 나만의 독특한 취향으로 고른 가구는 내 개성을 반영하지만, 단지 유행이니까 산 명품템들은 결국 “남들이 좋다니까” 산 것이므로 내 정체성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소비를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 볼 것인지, **사회적 동조의 수단**으로 볼 것인지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우절은 당연히 전자를 지지합니다. **돈을 쓸 때 자기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 후회가 없고,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죠. 반면 남 흉내내기식 소비는 허무감과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우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효용에서 오는 즐거움이 지위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지속가능하다”고 말합니다 <sup>67</sup>. 그는 인생의 성공은 결국 얼마나 오래 버티고 지속하느냐(Endurance and longevity)에 달린 경우가 많은데, 지위 경쟁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항상 더 높은 지위를 원하면 끝이 없고 결국 지칠 수밖에 없지만, 효용과 내실을 추구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sup>67</sup>. 이는 하우절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단기적 성취보다 장기적 지속을 중시하는 그의 철학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책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예화와 인용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투자의 대가 나심 탈레브의 말을 빌려 “세상에는 돈을 어떻게 쓰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과,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반반씩 있다”는 식의 통찰을 언급합니다 <sup>69</sup>. 이는 **돈을 아끼기만 하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과, 돈 쓰는 걸 멈추지 못해 항상 부족한 사람** 모두 문제라는 것이고, 현명한 태도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효용 대 지위의 균형**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효용만 따지다보면 인생의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너무 실용적으로만 살면), 지위만 쫓다보면 속빈 강정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우절의 강조는 분명 효용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전반적 메시지가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이고, 효용이 바로 그 도구적 측면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거나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궁극적 행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장을 읽은 독자들은 자신들의 소비 습관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효용보다 지위 때문에 지갑을 열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이게 날 위한 건지 남 보라고 사는 건지 한 번 생각해볼 것이다.” 같은 다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물건의 가치란 오로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얼마나 도움되느냐로 결정된다**”는 문장 <sup>70</sup>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독자들은 소비 결정의 궁극적 판단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즉, “**이것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줄 것인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sup>70</sup>라는 깨달음입니다.

또 “사치품의 참된 즐거움은 오히려 간소한 삶을 살 때 더 커진다”, “대조의 힘 덕분에 평범한 것도 놀랍게 느껴질 수 있고, 너무 특별한 것은 오히려 시큰둥하게 만든다”는 언급도 눈길을 끕니다 <sup>71</sup>. 이는 아마 다음 장 “The Finer Things”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고급만 쓰면 그 특별함이 무뎌지고, 오히려 가끔 누릴 때 더 즐겁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효용과 지위의 관점**에서 보면, 효용을 중시해 평소엔 소박하게 지내면 때때로 누리는 사치의 행복이 크지만, 지위만 쫓아 늘 사치에 익숙하면 행복의 감흥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8장은 소비에 대한 철학적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이 소비는 나에게 실질적 유익(효용)을 주는가, 아니면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지위) 목적인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했던 많은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우절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가급적 효용에 돈을 쓰고, 지위를 위해 돈 쓰는 일은 최소화하라. 후자는 값비싼 치장일 뿐 금방 색이 바랜다.**” 이 깨달음은 독자들에게 앞으로 돈을 쓸 때 작은 멈칫의 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칫이야말로 현명한 소비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 9장. 위험과 후회 (Risk and Regret)

9장 「위험과 후회」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는 돈 관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영원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즐길 것인가, 내일을 대비할 것인가?**” 하우절은 이 장에서 저축과 소비의 균형, 인생을 누리는 것과 대비하는 것 사이의 줄타기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위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위험 혹은 반대로 지금을 즐기다 미래를 그르칠 위험을 의미하고, ‘**후회**’는 그 선택으로 인해 나중에 돌아보며 느끼는 후회를 가리킵니다.

하우절은 먼저 인정합니다. “**오늘을 위해 살라는 조언과 내일을 위해 저축하라는 조언은 둘 다 중요하며, 둘 사이에는 영원한 긴장이 존재한다.**” 실제로 인생에서 이 두 가치의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죠. 젊을 때 아끼기만 하다가 늙어서 돈이 있어도 건강이나 기회가 없어 후회할 수 있고, 반대로 젊을 때 평평 쓰다가 노년에 궁핍해져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우절은 이 양극단 모두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딱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오늘을 즐겨라’와 ‘미래를 대비하라’ 사이 어딘가에서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sup>69</sup>.

하우절은 이에 관한 자신의 지침을 하나 제시하는데, 바로 “**Minimize future regret**”, 즉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sup>72</sup>. 그는 “**‘오늘을 즐겨라’나 ‘미래를 위해 아껴라’처럼 간단한 말로는 충분치 않다. 유일하게 유효한**

조언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최소화하라’는 것뿐이다”라고 못박습니다 <sup>72</sup>. 이 말은 겉보기엔 당연하지만, 실제로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지침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선택을 피하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돈을 안 쓰면 평생 못 해볼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안 하고 후회하는 쪽이 클 것이고, 반대로 지금 펑펑 써버리면 나중에 곤경에 처하게 뻔한 일이라면 그 소비는 절제해야 후회가 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후회를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우절은 몇 가지 원칙과 예시를 들어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첫째, “**좋은 삶은 종종 일어나지 않은 일들 덕분에 가능해진다**”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sup>53</sup>. 그가 인용한 문구 중에 “인생에서 좋은 일의 대부분은 결국 벌어지지 않은 사건들에 달려있다” <sup>53</sup> 는 게 있는데, 이는 **위험을 피하고 재앙을 피한 것** 이야기로 좋은 삶의 큰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30대에 유혹을 못 참고 빚내서 투자했다가 망하지 않은 것, 40대에 사치 부리다 파산하지 않은 것, 50대에 큰 병 치료비 마련해둔 것 등 이런 “안 일어난 나쁜 일들”이 결국 좋은 삶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하우절은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안전망을 쳐두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을 만드는 행위이고, 그 덕분에 인생의 궤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돌이켜보면, 당신이 좋은 인생을 살았는지 여부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나 썼는가와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sup>73</sup>. 인생 말년에 돌아볼 때, **내가 벌어들인 총액이나 소비액보다는, 어떤 후회가 남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상상해보면 (예: “왜 돈만 아끼느라 짚을 때 여행 한번 못 했을까”, 또는 “왜 흥청망청 써버려서 노년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었을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덜 후회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우절은 “**좋은 기억은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sup>74</sup>. 이는 흥미로운 시각인데, “**좋은 추억은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위한 복리 효과를 내는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sup>74</sup>. 무슨 뜻일까요? 즐거운 경험을 만들고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은 현재 돈을 쓰는 행위지만, 그 기억이 평생 행복의 자산으로 남아 우리를 지탱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한 멋진 여행의 추억은 앞으로 힘든 시기에 마음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노년에 미소 지으며 떠올릴 삶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전혀 즐기지 않고 미래만 대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좋은 추억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위해 복리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그의 비유 <sup>74</sup> 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의 가치를 잘 대변해줍니다.

셋째, “**미래를 위한 저축은 곧 오늘의 독립을 사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조언도 합니다 <sup>75</sup>. 일반적으로 저축은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의 독립(금전적 자유)을 사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하우절은 **저축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지금 저축이 있으면, 당장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나 싫은 프로젝트를 겪어도 어느 정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겐 비상금이 있고 경제적으로 버틸 힘이 있으니 꼭 무리하지 않아도 돼”라는 마음은 **현재에도 독립심을 줍니다**. 하우절은 이 점을 언급하며 “**미래를 위한 저축은 곧 오늘의 독립을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sup>75</sup>. 따라서 저축은 단순히 미래 행복만이 아니라, **현재 자신감을 불어넣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축도 하나의 **현재 행복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하우절은 “**좋은 삶은 결국 일어나지 않은 일(큰 실패나 사고)을 얼마나 막았는가에 달렸다**”고 다시 한 번 환기하며 <sup>76</sup>, **과도한 리스크를趨**아 모든 걸 걸었다 잃는 것만은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탐욕은 한때 성공했던 행동을 지속 불가능할 때까지 거듭하는 것에서 오고, 공포는 늘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를 고민하다 스스로 마비되는 것에서 온다**”고 분석합니다 <sup>77</sup>. 이는 투자나 인생 의사결정 모두에 적용되는데, **한번 잘 되었다고 무리하게 배팅을 늘리다 실패하는 것이 탐욕이고, 항상 최악을 염려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 과도한 공포라는** 것이죠 <sup>77</sup>. 두 가지 모두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9장의 메시지는 **균형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인생의 딜레마를 “**영원한 줄다리기**”로 인정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둘 중 하나만이 아닌,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최대한 살리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말합니다 <sup>78</sup>. BookJelly 리뷰어도 이 장을 가리켜 “**오늘과 내일 사이 영원한 줄다리기**, 하우절은 이 긴장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고 평했지요 <sup>79</sup>. 이 현실적 조언이란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sup>72</sup>.

독자들은 이 장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후회를 나중에 만들고 있는가?” 어떤 이는 지나치게 아끼느라 가족과 추억을 못 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저축 한 푼 없이 소비하는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하우절의 글은 **독자가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돋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뒤돌아볼 때 돈을 얼마나 벌고 썼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sup>73</sup>라는 문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후회없이 살기 위해 지금 뭘 해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한 독자는 이 부분을 읽고 “퇴직 후에야 쓰려고 아껴둔 여행자금을 조금 덜 모으더라도,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심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늘 ‘언젠가 여유 생기면…’하며 미룬 꿈이 있는데, 혹시 영영 못 할까 두려워졌다”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삶에서 후회를 줄이는 선택이 촉발되었다면, 하우절의 의도는 충분히 달성된 셈일 것입니다.**

## 10장. 저 사람들을 보라 (Look At Them)

10장 「저 사람들을 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비교와 질투의 심리를 다룹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우리의 재정적 결정과 행복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칩니다. 특히 사회적 비교를 통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우선 하우절은 인간에게 “**사회적 비교**”가 거의 본능처럼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자신을 견줍니다. 이러한 시선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쫓게 되는데, 하우절은 이것이 **행복을 좀먹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나 일화 등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예로 충분히 공감가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보다 약간 더 가진 사람들을 응시하며, 거기에 오래도록 눈길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1억 버는 친구를 부러워하고, 1억 버는 사람은 3억 버는 선배를 바라봅니다. 누구나 **자신보다 한 두 단계 높은 계층의 생활을** 동경하게 마련이죠<sup>51</sup>. 하우절은 이것을 “**사회경제적 바로 윗집단에 시선을 고정하는 경향**”으로 표현합니다<sup>51</sup>. 문제는 그렇게 남을 보다 보면, 절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그들을 보면 지금 가진 것이 하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우절은 이 부분에서 조지 카린의 운전 속도 농담(앞 장들에서 언급한)과 함께, **질투의 어리석음**에 대해 거듭 강조합니다<sup>29</sup>. 특별히 그는 “남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신의 사고력을 낮선 이들에게 외주주는 꼴”이라고까지 말합니다<sup>50</sup>. 이 표현이 상당히 강렬한데, **질투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판단 기준으로 내 행복을 가늠하는 셈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할 때는 “저 사람이 가진 것 = 내가 없어 불행한 것”이라는 무언의 등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우절은 이것이 **주체적인 삶을 포기하는 태도**라고 경고합니다<sup>50</sup>. 왜 남이 정한 기준에 내 행복을 맞추냐는 것이죠.

또한 하우절은 **질투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부러워할 때 결코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좋은 면만 보고 그것과 내 전부를 비교하는 우를 범합니다. 예컨대 어떤 동료는 나보다 연봉이 높아 보여 부럽지만, 그 사람은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SNS에 늘 여행 사진을 올리는 지인은 사실 관계가 불안정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질투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한다는** 것이지요. 하우절은 이 점을 일깨우며,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일부 하이라이트만 보고 내 삶 전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전부 보는 것이 아닌데도 당신의 비판적 사고를 남에게 맡겨버리는 행위**”라는 표현에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sup>50</sup>.

이어 하우절은 **FOMO(Fear of Missing Out)**, 즉 남들만 뭔가 잘되고 자신은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언급합니다. “**FOMO –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는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재정적 반응 중 하나다**”라고 그는 경고합니다<sup>80</sup>. 이는 투자 분야에서도 자주 말하는 내용인데, 남들이 다 돈 번다는 소식에 무작정 뛰어들다 낭패 보는 경우, 남들이 다 소비하는 유행에 편승하느라 과소비하는 경우 등을 가리키지요. **FOMO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면, 결코 현명한 재정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당신이 부유해질수록 남들에 대한 질투심이 커질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sup>81</sup>. 하우절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부자가 될수록 오히려 남들 것을 질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합니다<sup>81</sup>.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하면, 비교군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주변과 비교했는데 이제 부자의 세계에서 더

윗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목표와 욕망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끝이 없어지는 것이죠. 일례로, 백만장자가 되면 이제 억만장자를 부러워하고, 억만장자는 세계 10대 부호를 질투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질투와 비교의 함정은 부자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빠지기 쉽다는 통찰을 줍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영원히 만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장에서는 또한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당신의 질투심과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sup>82</sup>. 하우절은 “어울리는 사람을 조심해라 (Be careful who you socialize with)”고 조언합니다 <sup>82</sup>. 이는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주변에 과시적이고 소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보조를 맞추려 돈을 쓰게 되고, 가치관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소하고 내실을 중시하는 환경에 있으면 그런 태도가 자연스러워지겠죠.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삼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우리의 비교 대상과 행복 기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때로는 환경이나 교제를 선택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10장의 교훈은 비교하지 않는 자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5장에서 “남에게 잘 보일 필요 없는 자유”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을 자유”를 역설합니다. 둘은 연결된 개념이죠. 남 눈치를 안 보면 내가 덜 부러워할 것이고, 남을 덜 부러워하면 남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확고히 갖고, 남의 삶을 지나치게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책의 전체 메시지를 압축한 듯한 문장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게 쓰고, 조용히 자산을 불려라. 돈은 당신을 위해 쓰여야지,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아무도 당신을 당신만큼 생각하지 않는다. 독립이 곧 부다. 건강이 곧 부다. 좋은 조상(선대)이 되도록 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sup>51</sup>

이 문장은 하우절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총체적 조언처럼 보입니다. 특히 “No one is thinking about you as much as you are” (아무도 당신에 대해 당신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남 의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sup>59</sup>. “독립이 부다, 건강이 부다”라는 부분도, 남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강조합니다 <sup>59</sup>. 결국 남들을 쳐다보고 살지 말고, 스스로의 삶과 가치에 집중하라는 권고입니다.

독자들은 이 장에서 특히 해방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 없다”는 문장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질투는 남의 생각을 내 사고 대신 쓰는 것”이라는 대목은 뜨끔한 깨달음을 줬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sup>50</sup>. 한 독자는 “늘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웠는데, 사실 남들은 내 성공이나 실패에 별 관심 없다는 걸 알게 되니 허탈하면서도 편안해졌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이는 “SNS를 끊기로 결심했다. 남들 삶 들여다보며 스트레스받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10장은 현대 사회의 만연한 비교 경쟁 풍조에 일종의 제동을 겁니다. 하우절은 돈의 주제로 시작해서, 결국 인생 철학의 문제로까지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우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는 책 전반의 다른 가르침들과 맞물려, “독립과 만족”이라는 일관된 가치로 통합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이어받아, 부와 자유의 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 11장. 자유 없는 부는 또 하나의 빈곤이다 (Wealth Without Independence is a Unique Form of Poverty)

11장 「자유 없는 부는 독특한 빈곤의 형태다」는 문장 그대로 경제적 부와 개인의 자유(독립)의 관계를 깊이 탐구합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돈이 많아도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일종의 가난과 다름없다고 역설합니다. 이는 앞 장들의 연장선에서, ‘진짜 부’의 조건으로서 독립(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우절은 “돈의 최고의 쓰임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sup>83</sup>. 이는 독자들에게 강하게 와닿은 문장 중 하나로, “돈의 최고 활용은 그것을 이용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sup>83</sup>.

그는 이 생각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BookJelly 리뷰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문구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sup>84</sup>. 구체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별개로, 돈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선택권을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우저는 실제로 “내가 보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시간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다”며 그들을 “특이한 형태의 빈곤”이라 칭합니다 <sup>85</sup>. 예를 들면, 연봉 수억 원을 벌지만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휴가도 못 쓰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곁보기에 부자일지언정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 빈곤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우저는 “독립(자율성)은 부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돈을 벌다가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행복을 침해받으면 과감히 방향을 틀 수 있는 용기, 또는 덜 벌더라도 내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선택이 진정한 풍요라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문장에서 “독립이 곧 부이고, 건강이 곧 부다”라는 부분 <sup>59</sup>도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과 마찬가지로 독립도 돈 못지않게 소중하며, 때로는 돈보다 우선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하우저는 독립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몇 가지 사례와 인용을 들려줍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 부의 전승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부자들이 자녀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해 “자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은 남겨주되, 아무 것도 안 해도 될 만큼은 주지 마라”고 언급합니다 <sup>86</sup>. 이 맥락에서, 자녀의 삶에서 독립과 자립심을 빼앗을 정도의 과도한 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유함과 자유의** 역설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너무 많은 돈이 오히려 삶의 추진력과 목적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쓸데없이 호화롭게 키우지 말고, 활주로(runway)를 주되 궁전(opulence)은 주지 마라”는 조언으로 표현했지요 <sup>87</sup>. 이를 통해 부를 대하는 균형 있는 태도 – 자녀든 자신이든 간에, 독립성과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부 – 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언급은 “**돈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부각시킬 뿐 아니라, 때로는 남들이 누군지 제대로 보는 눈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sup>88</sup>. 하우저는 “돈을 가지면 당신의 본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또한 돈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눈을 멀게 하기도 한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sup>88</sup>. 이는 **부와 인간관계, 그리고 자아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의 성향(착한 사람은 더 관대해지고, 나쁜 사람은 더 오만해지는 식)이 증폭되는 한편, 부유해진 사람은 오히려 다른 이들의 진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자기에게 잘해주니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부유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맹목적인 상황)** 특수한 빈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많아도 진정한 친구나 솔직한 피드백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독자들은 이 문장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고, “돈이 있으면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진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sup>88</sup>.

근본적으로 이 장은 “**왜 돈을 벌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재구성하게 합니다. 하우저에 따르면, **돈을 버는 궁극 목적은 자율성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돈 자체를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면,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당신이 누구인지를 강화하는 도구여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문장도 있는데, 이는 독립성의 관점에서 돈을 바라본 주장입니다 <sup>89</sup>. 즉, **돈은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해주는 지렛대일 뿐, 돈 그 자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sup>89</sup>.

이러한 메시지는 실제 독자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높은 연봉을 위해 내 삶의 통제권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삶이 더 부자다” 등의 깨달음을 공유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독자는 이 장을 읽고 회사에서의 커리어를 재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야말로 독립을 제약하고 건강을 해치는데, 더 돈 준다고 좋은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며, 워라밸이 있는 일로 옮길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얼마나 벌었나보다 얼마나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았나로 인생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하우저의 통찰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결국 독립이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인생말년에 “정말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가 진짜 부의 여부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11장은 **부의 질을 독립의 관점에서 재정의합니다**. 돈이 많아도 시간, 건강, 인간관계, 자아 등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면 그건 반쪽짜리 부라는 것입니다. 하우저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라

고 규정하며, 독자들에게 돈을 벌면서 동시에 그 자유를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sup>83</sup>. 이는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교정해줍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예: 여가, 가족과의 시간, 건강)를 점검하게 만들고, 부를 추구하더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하우절은 결국 “돈을 위해 내 자유를 팔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셈입니다. 부와 독립을 맞바꾸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이 장의 가르침은, 경제적 성공을 좇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균형감각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사회적 빚(Social Debt)’과도 연결되며, 부자일수록 조심해야 할 함정들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 12장. 사회적 빚 (Social Debt)

12장 「사회적 빚」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사회적 부채’를 다룹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돈과 사회적 관계의 미묘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부나 소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때론 빚과 같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독특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선 하우절은 ‘사회적 빚’을 정의합니다. 그는 “사회적 빚이란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이 타인들이 당신을 생각하는 방식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꿔놓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sup>90</sup>. 쉽게 말해, **내 소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구는 매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동료들이 “저 사람 돈 많이 버나보네”하고 편견을 갖거나, 가족 모임에서 혼자만 과시적 소비를 하면 친척들이 “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오해하는 식입니다. 또는 복권 당첨자 사례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주변의 시기와 원망을 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부채**로 작용해 인간관계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사회적 빚은 숨겨진 형태의 부채라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sup>90</sup>. 금전적 빚은 눈에 보이고 숫자로 계산되지만, 사회적 빚은 알아차리기 어렵고 천천히 쌓여갑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남들 앞에서 돈을 쓰며 자랑하는 사람은 어느새 주변에 적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시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기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냉대를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진 사회적 빚의 청구서**가 날아온 격입니다.

하우절은 몇 가지 예시로 사회적 빚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흔히 부자들이 토로하는 고충 중 하나가, **돈이 생기면 가족과 친구들이 돈으로 자기를 판단하거나 이용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들이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청탁이 빗발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때 당첨자는 돈은 생겼어도 **사회적 빚**을 떠안은 셈입니다. 모두에게 베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원망을 사게 되고, 결국 인간관계에 균열이 가죠.

또 부자가 되면 **모든 식사 비용을 늘 내가 내야 한다거나, 선물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스스로 만든 압박이든 주변 기대이든 간에, 부자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의무)를 요구받는다면 그것도 **사회적 부채**입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예들을 통해 “**돈이 당신과 주변 사이에 미묘한 부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sup>90</sup>. 즉, 경제적 부채만이 빚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편견도 일종의 빚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회적 빚을 관리하거나 피할 수 있을까요? 하우절은 다시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용히 부유해지라(quietly rich)**”는 그의 일관된 메시지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필요 없는 과시나 사치로 관계에 금가는 일 없게 하라**”는 조언입니다.

예컨대, 친구들 모두 중저가 식당에 갈 경제 수준인데 혼자만 늘 고급 레스토랑을 주장한다면, 점차 그 친구들은 당신과 어울리기 어렵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혹은 주변이 어려운데 혼자만 호화로운 소비 자랑만 하면, 정서적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하우절은 이런 “**눈치 없음**”이 사실은 나중에 자신에게 빚으로 돌아옴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필요할 때 도움이나 우정이라는 자산을 잃게 된다는 의미니까요.

또 하나, 하우절은 “**모든 저축은 미래에 대한 청구권인 만큼, 모든 빚도 미래에 대한 의무**”라는 메타포로 다시 한 번 사회적 빚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매달 돈을 모으면 미래의 자유를 확보하지만, **사회적 빚이 쌓이면 미래의 인간관계 평판**

을 깎아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자신의 소비 행동이 주변에 끼치는 파장을 의식하라고 권합니다. 이건 남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ookJelly 리뷰에서도 이 부분이 흥미롭게 요약됐습니다. 하우절은 독자들에게 “당신의 소비가 남들에게 원치 않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그건 숨은 부채를 지는 것과 같다”고 일깨우며, “조용히 자산을 불려라, 남들이 모르게”라는 그의 철학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sup>90</sup> <sup>91</sup>. 실제로 그는 책 전반에서 “남 앞에서 공연히 돈자랑할 필요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는데, 이 장에서 사회적 빚 개념으로 그것을 논리화한 셈입니다.

한 독자는 이 부분을 읽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심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산 비싼 것들을 자랑하곤 했는데, 그게 친구들에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본 적 없었다. 혹시 속으로 날 멀리하게 된 건 아닐까 걱정됐고, 앞으로 조심하려 한다”. 또 다른 독자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이 내가 승진하고 난 뒤 돈 부탁을 해왔는데, 하우절 말대로 내겐 그게 사회적 빚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앞으로 재산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문화권에 따라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돈 문제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잠재력이 큰 주제이므로, 하우절의 주의환기는 의미있습니다.

정리하면, 12장 사회적 빚은 “부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 생기는 인간관계의 의무와 부담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빚을 지지 않도록 현명히 처신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부를 늘리는 방법보다 부를 둘러싼 덕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우절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잃으면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부자다움의 품격이라는 개념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겸손하고 주변을 배려하며, 돈으로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읽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빚을 없애는 방법은 곧 돈에 대한 겸손과 조화일 테니까요.

다음 장인 13장 “조용한 복리(Quiet Compounding)”에서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며 어떻게 부를 쌓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 12장의 교훈은 그 바탕이 될 것입니다. 부를 과시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는 태도가 결국 복리의 마법을 발휘하는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 13장. 조용한 복리 (Quiet Compounding)

13장 「조용한 복리」에서는 돈과 삶에 있어서 꾸준히, 조용히 쌓아가는 힘을 조명합니다. ‘Quiet Compounding’이라는 표현은 보통 투자에서 말하는 복리(compounding)의 마법이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하우절은 이를 단지 금융 수익률에 국한하지 않고 인생 전반의 태도로 확장합니다. 이 장은 성공과 부를 이루는 데 있어 보여주기식 요란함보다 묵묵한 지속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일깨웁니다.

하우절은 먼저 복리의 힘을 설파합니다. 이는 그의 전작 『돈의 심리학』에서도 강조된 개념으로, 시간을 들여 조용히 축적하면 상상 이상의 결과에 도달한다는 원리입니다. 예금이든 투자이든, 또는 지식과 경력이든, 복리는 작게 시작해도 오래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보이면 조바심 내고 전략을 바꾸거나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하우절은 “조용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돈에 대해 그는 “조용히 부를 축적하라. 적게 쓰고, 꾸준히 투자해라. 그러면 부는 스스로 불어난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고, 이 장에서 이를 응집시킵니다 <sup>59</sup>. 이는 다른 장들의 교훈과도 연결됩니다. 남들 앞에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적절히 아끼며, 긴 안목으로 운용하는 것이 곧 Quiet Compounding의 자세입니다. 주변의 유혹이나 남들과의 경쟁에 흔들리지 않고, 나와 내 가족, 내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돈을 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BookJelly 리뷰에서도 이 챕터를 높이 평가했는데, 리뷰어는 특히 “남을 위한 공연(퍼포먼스)을 그만두고, 소수의 소중한 이들을 위해 노력하라”는 하우절의 충고에 주목했습니다 <sup>92</sup>. 하우절은 Quiet Compounding을 위해선 조용한 환경(내부)과 목적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상대로 성과내려 애쓰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연결된 몇몇 사람들

을 위해 성과를 내라”고 조언합니다 <sup>92</sup>. 예컨대, SNS의 수천 팔로워에게 인정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나 모험을 하기보다,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행복을 위해 차분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의 소비와 결정이 박수갈채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 같은 삶의 일부인 사람들에 맞춰지면, 소비가 깔끔해지고 후회가 준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sup>92</sup>. 이는 Quiet Compounding을 위한 내면의 대상을 설정하는 조언입니다.

또한 하우절은 Quiet Compounding의 핵심으로 “지속성(Endurance)”을 꼽습니다 <sup>67</sup>. 그는 “내게 지속 불가능한 일은 흥미가 없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성공의 열쇠는 바로 버티고 오래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sup>67</sup>. 이는 Quiet(조용함)과 Compounding(복리)의 합에 부합하는 가치관입니다. 뒤지 않게 오래하기가 바로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는 투자뿐 아니라 경력, 건강 관리, 인간관계 등 다 통하는 원칙입니다. 빨리 치고 나가려 무리하다 지치는 것보다는, 천천히 꾸준히가 결국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여기서 하우절은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은 천천히 부자 되는 것이다(The fastest way to get rich is to go slow)**”라는 경구도 인용합니다 <sup>93</sup>. 실제로 무리하게 고수익을 좇다 망하는 경우보다, 안정적으로 분산투자해 꾸준히 불린 사람들이 끝엔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는 이 역설을 강조하며, 특히 젊은 독자들에게 “**인내하라, 복리는 처음엔 티 안 나지만 나중에 엄청나다**”고 충고합니다.

Quiet Compounding의 또 다른 측면은 “**남들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남들에게 보여주려 애쓰지 않으면, 당신의 소비 결정은 훨씬 깨끗해지고 후회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sup>92</sup>. 즉, 외부 시선의 소음을 줄이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저축, 투자, 자기계발 등)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결과 복리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는 Quiet Compounding을 단순히 돈 불리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나 좋은 추억도 조용히 쌓여 간다고** 봅니다. 9장에서 말한 “**좋은 추억이야말로 오늘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맥락과도 연결되지요 <sup>74</sup>. 사랑하는 가족과 차분히 보내는 시간들, 틈틈이 쌓은 자기 역량, 작은 습관의 형성 등도 복리로 쌓여 미래의 커다란 행복이나 성취를 만든다는 겁니다.

독자들은 이 장을 읽으며 일종의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들 합니다. “성공은 결국 조용히 오래 하는 데서 온다”는 메시지가 조급함을 내려놓게 해줬다는 반응입니다. 한 독자는 “남들 앞에서 티 안내도, 내 가족과 내 계좌엔 내가 꾸준히 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 편해졌다”고 했고, 다른 이는 “투자에서 큰 한 방 노리다 잃었었는데, 이제 작은 이익을 꾸준히 모으는 전략으로 가야겠다”며 전략 수정을 다짐했습니다.

또 “No one is thinking about you as much as you are(아무도 당신을 당신만큼 생각하지 않는다)” <sup>59</sup>라는 말과 함께, “그러니 조용히 네 갈 길 가라”는 하우절의 메시지가 크게 와닿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 말은 Quiet Compounding의 환경을 조성하는 주문과 같습니다. 남이 신경 안 쓰니, 나도 남 신경끄고 묵묵히 나아가라는 것이니까요.

요약하면, 13장은 “**성공과 부의 가장 강력한 엔진은 조용한 꾸준함**”이라는 진리를 전합니다. 하우절은 이를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 책 마지막에 “**Spend less than you make. Quietly compound. Money serves you, not the other way around...**”으로 시작하는 일련의 조언들을 나열하는데, 바로 Quiet Compounding 철학의 정수라 할 부분입니다 <sup>51</sup>.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조용히 복리 효과를 누려라. 돈은 당신을 위해 봉사해야지 그 반대가 아니다. 아무도 당신을 당신만큼 생각하지 않는다. 독립이 부다. 건강이 부다...**” <sup>51</sup>

이 구절은 Quiet Compounding의 구체적 실천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약하고 투자하며, 돈을 도구로 보고, 남 신경쓰지 않고, 독립과 건강을 챙기는 삶.

독자들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스스로의 재무습관과 생활태도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Quiet Compounding은 단순한 재테크 팁이 아니라, **하우절이 제시하는 라이프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겸손, 인내, 절제, 장기적 안목, 자기 주도성 등 이 책에서 누누이 강조된 덕목들의 집합체입니다.

이제 다음 장 “**정체성(Identity)**”에서는 이러한 Quiet Compounding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인 **돈과 나의 정체성 혼동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신이 돈에 휘둘려 정체성이 갇히는 경우, 조용히 꾸준히 나아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Quiet Compounding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돈을 삶의 도구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14장 정체성 주제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 14장. 정체성 (Identity)

14장 「정체성」에서는 돈과 개인의 정체성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헤칩니다. 하우저는 이 장에서 사람들이 돈에 얹매여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이 돈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돈은 당신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며, 돈 때문에 자신을 잃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먼저 돈과 정체성이 섞이는 혼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평생을 아껴 살아온 사람들이 그 대표적 경우입니다. 그는 서두에서 한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은 평생 저축만 하다 ‘저축하는 사람(saver)’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강해져서, 정작 은퇴 후에도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다”<sup>94</sup>. 이는 절약이 미덕이라 내면화된 나머지, 상황이 바뀌어도 지출에 죄책감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하우절은 이를 두고 “Saver라는 정체성이 빛속까지 박혀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sup>94</sup>. 이런 경우 돈을 쓸 능력이 있어도 못 쓰니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소비중독적인 정체성**도 있습니다. “나는 플렉스하는 사람아야, 돈 쓰는 재미로 살아”라는 식의 자기인식이 생기면, 과소비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우절은 “돈에 사로잡혀 돈 쓰기나 쌓아두기에 중독되면, 돈이 당신의 성격을 구속한다”고 경고합니다<sup>95</sup>. 그는 심지어 “만약 당신이 자기 ‘것(thing)’을 찾지 못한다면(취미나 열정), 돈이 당신을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돈 모으는 데 중독되었거나, 돈을 도구로 써서 즐거움을 얻는 법을 몰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sup>95</sup>. “**돈에 불잡혀서 돈 자체가 성격을 조종하는 상태**”를 경계하는 것이죠<sup>95</sup>.

이처럼 돈에 관련된 습관이 극단화되면 정체성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되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우저는 이를 피하려면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thing)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95 . 예컨대, 돈이 나의 목적이나 자랑거리, 애착담요(blanket)가 아니라, 내가 진짜 열정을 느끼는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역할하도록 삶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사람들은 흔히 사회가 시키는 대로 좋아한다고 착각한다(**It's common for people to default to whatever society tells them they should like**)”고 지적합니다 <sup>96</sup>. 이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쓰면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명품 가방, 최신 전자기기, SNS에서 힙한 경험… 사회가 멀지다고 떠받드는 것들을 덥석 덥석 소비하지만, 정작 그게 자신에게 정말 의미있는지 모른 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sup>96</sup>. **자신만의 정체성이 없으면 돈을 남이 정해준 기쁨을 쫓는 데 써버리게 된다고 경고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우저는 “빨리 No라고 말할 것을 배우는 것이,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sup>97</sup>. **자신에게 불필요하거나 맞지 않는 소비 유혹에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돈이 진정 나에게 의미있는 곳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sup>97</sup>.

또한 하우절은 “진정한 독립적 사고의 가치”를 언급합니다 <sup>98</sup>.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남들이 다 투자한다고 해서, 다 명품 산다고 해서 훨슬리지 않는 독립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Money should leverage who you are, not be a goal 자체라는 그의 말과 통합니다 <sup>89</sup>. 돈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뒷받침해주는 도구 여야지, 돈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sup>89</sup>. 다시 말해, ‘나’라는 정체성이 중심에 서고 돈은 그걸 도와야지, 돈이 중심에 서고 내가 거기에 맞추면 인생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BookJelly 리뷰에서도 이 부분이 인상깊게 언급됐습니다: “돈은 당신을 뚜렷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보는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sup>88</sup>. 이 문장을 통해, 돈이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ex. 착한 사람 더 선행, 나쁜 사람 더 부도덕하게), 역으로 돈의 힘에 취해 남들을 제대로 못 보는 (겸손과 공감을 잃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sup>88</sup>. 특히 부자들은 아첨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자신을 이용하는지 분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돈으로 인해 정체성이 왜곡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우절은 “돈과 자아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그는 “돈으로 자신의 소비를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당신이 구축한 것(일, 가정 등)을 자랑스러워하라”는 문장을 남기는데<sup>99</sup>, 이는 정체성의 초점을 바로잡으라는

의미입니다. 내 소비품목(차, 집, 옷 등)으로 나를 정의하지 말고, 내가 이룬 가치(경력, 인간관계, 성품)로 스스로를 정의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돈이 덜 흔들어놓습니다.

또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분리하라(Separate what you like from what you want)”는 조언도 핵심적입니다 <sup>64</sup>. 이것은 욕망(Want)과 기쁨(Like)의 구분으로, 사회가 주입한 욕망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를 판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자기 정체성에 맞게 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돈이 정체성을 채워주길 바라며 해매게 됩니다.

이 장은 독자들에게 상당히 철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깨달음을 줬다는 평이 많습니다. 한 투자자는 “항상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해왔는데, 하우절 말 듣고는 그 생각이 나를 너무 옥했다는 걸 깨달았다. 돈 쓰는 법도 배워야겠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돈 많이 쓰는 쪽이라, 혹시 돈 쓰는 게 내 정체성의 버팀목이 된 건 아닌지 돌아봤다. 돈 안 쓰고도 나 자신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진짜 독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지요.

결론적으로, 14장은 자기 자신과 돈 사이의 주종 관계를 재정립시킵니다. 돈이 나를 규정하거나 조종하는 상황이 아닌, 내가 주체로서 돈을 다루는 관계. 그러기 위해선 정체성(내가 진짜 원하는 삶과 가치)가 뚜렷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우절은 자신이 이 책 대부분의 내용을 “자기 삶에서 돈과 행복을 이해하려고 한 생각의 산물”이라고 고백했듯 <sup>100</sup>, 결국 정체성에 충실했던 돈 사용이 행복의 핵심이라 결론내리는 셈입니다.

14장의 메시지는 이후 15장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Try Something New)”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은 변화와 모험을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하우절은 이어질 장에서 삶의 다양성과 유연함이 돈과 행복에 어찌 필요한지 역설할 예정입니다.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게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돈을 즐겁고 의미있게 쓰는 비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15장.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Try Something New)

15장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제목 그대로 변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돈을 쓰는 방식이나 삶의 루틴에 변화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반복되는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우절은 먼저 “항상 사회가 정해준 것만 좋아하지 말고, 때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권합니다. 이는 앞선 정체성 장에서 “사람들은 흔히 사회가 좋아하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한다”는 지적과도 이어집니다 <sup>96</sup>. 즉, 남들 대하는 대로만 돈을 쓰지 말고,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소비 습관도 마찬가지죠. 늘 가던 곳만 가고, 먹던 것만 먹고, 입던 브랜드만 고집하면 안정감은 있지만 삶에 활력과 발견이 부족합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안일함을 깨뜨리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왜 새로운 시도가 중요할까요? 그는 “다양성 자체가 하나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sup>97</sup>.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삶에 변주(variation)를 만들어주며,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sup>97</sup>. 일종의 **해도닉 트레드밀 (hedonic treadmill)**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은 같은 행복에 금방 익숙해져 버리기에,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통해 행복의 폭과 깊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우절은 “여러분이 빨리 No라고 말할 것을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Yes라고 말해야 할 새로운 기회들도 많다”는 식으로 조언합니다 <sup>97</sup>. 즉, 앞에서 불필요한 소비는 No 하라 했지만, 새롭고 의미있을 수도 있는 소비 기회는 과감히 Yes 해보라\*\*는 균형적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는 “돈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 갇혀버리지 않도록, 때로는 돈을 다르게 써보라”고 총고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정체성에서 말한 “돈 모으는데 익숙해 돈 못 쓰는 사람”이라면 일부러라도 새로운 지출(예를 들면, 값진 경험이나 조금 사치)을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즉흥적으로 돈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 장기 투자나 저축 프로젝트에 도전해보라는 것이고요. 익숙한 습관의 반대를 해보면, 다른 세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우절은 새로운 것의 시도가 반드시 성공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핵심은 “다양한 시도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진짜 독립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작게 시도해보고 피드백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sup>98</sup>. 실패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안 입어보던 스타일 옷 사봤는데 별로면 그거 자체로 내 취향을

알게 된 거고, 안 가보던 유형의 여행 갔다 어려웠다면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실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가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Good advice is never as simple as 'Live for today' or 'Save for the future'. Only good advice is 'Minimize future regret'”<sup>72</sup> 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데, 결국 **후회가 덜 남을 삶은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만의 공식을 찾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강하게 믿되, 약하게 고수하라(strong beliefs, weakly held)**”는 전략도 소개합니다<sup>101</sup>. 이는 투자 세계에서 유명한 문구인데,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나타나면 기존 신념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말합니다. 하우절은 돈과 인생에서도 이 태도가 유용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계획과 소비습관이 최선이라 믿더라도, 더 나은 길이 보이면 기꺼이 시험하고 변화하라는** 것이죠<sup>101</sup>.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라는 일종의 지적 유연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는, 하우절이 “**노(no)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예스(yes)라고 말하는 법도 중요하다**”고 한 부분입니다<sup>97</sup>. 저축하고 안전하게만 사는 사람에게는 예스라고 말하는 용기가 부족할 수 있고, 충동적인 사람에게는 노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듯, 우리 모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인생은 어차피 “**적당한 모험과 적당한 안전**”이 섞일 때 풍요롭다는 것이지요.

독자들은 이 장을 상당히 영감을 주는 챕터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하우절이 등 떠밀어줘서, 미루던 취미 생활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고, 또 다른 독자는 “항상 안전한 것만 택해왔는데, 한 번쯤 모험적인 여행을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새로운 자기계발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 말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다**”고 공감했습니다.

결국, **15장은 삶을 소비하는 방식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라는 주문**입니다. 이는 돈을 쓰는 기술 측면에서도 현명합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말처럼, 경험의 포트폴리오도 넓어야 위험이 분산되고 만족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하우절은 그렇게 **경험의 복리를 도모하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 **16장 「당신의 돈과 당신의 아이들」**에서는 부모의 돈 씀씀이와 아이 교육, 상속 등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장에서 암시된 **유연함과 균형감**은, 자녀 세대와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중요한 덕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새 세대의 관점도 이해하며 돈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16장 역시 앞 장들의 철학을 적용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6장. 당신의 돈과 당신의 아이들 (Your Money and Your Kids)

**16장 「당신의 돈과 당신의 아이들」**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돈과 행복에 대한 철학을 다루는 장입니다. 하우절은 이 부분에서 **부모로서 가져야 할 돈에 관한 태도와,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핵심 주제는 **자녀를 돈으로 망치지 않고, 그렇다고 결핍시키지도 않으며, 어떻게 경제관념과 행복관을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하우절은 먼저 부유한 부모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를 언급합니다. “**얼마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적당한가? 너무 많이 줘서 아이들 의욕을 꺾을까 염려되고, 너무 안 주자니 왜 벌었나 싶다.**” 이런 고민들이죠. 그는 이와 관련해 억만장자 위런 버핏의 유명한 조언을 인용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은 남겨주되,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은 주지 마라.**”<sup>86</sup>. 즉, **아이들이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하되, 일하지 않아도 굴러먹을 만큼 주진 말라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이에 깊이 공감하며,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활주로(runway)를 깔아주는 것**이지, 그들의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유합니다<sup>86</sup>. 이 부분에서 그는 “**아이들을 응석받이로 키우지 말고, 활주로(runway)는 주되 사치(opulence)는 주지 마라**”고 경고하죠<sup>86</sup>.

또한 하우절은 “**아이들에게 부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도록 채찍질만 하거나, 반대로 돈은 전혀 중요치 않다고 가르치면 극단이 생깁니다. 그는 “**돈과 행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돈만 쫓다 행복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sup>84</sup>. 실제로 책 전반에 흐른 메시지이기도 한 “**돈의 최고 용도는 시간과 자유를 사는 것**”<sup>84</sup>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이죠. 즉, **돈을 버는 법 뿐 아니라, 돈으로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생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우절은 또한 “아이들에게 원가를 다 해주고픈 부모 마음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재력 있는 부모들은 아이가 어려움 안 겪길 바라며 돈으로 문제를 치워주곤 하는데, 그럴수록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잃고 독립심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Inherited wealth is a real handicap to happiness(상속 재산은 행복에 진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밴더빌트 가문의 일화도 앞서 등장했죠 <sup>102</sup>. 하우절은 이런 사례를 통해, 돈을 너무 쉽게 얻은 사람들의 공허함을 경고합니다. 자녀가 그런 뒷에 빠지지 않도록, 적당한 불편과 노력의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 장에서 하우절은 자신의 부모나 자녀와의 일화도 살짝 묘사합니다(그의 글엔 종종 자신의 아이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이를 통해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행복”이라는 보편적 진실을 짚어냅니다 <sup>103</sup>. “부모에게 아이가 부자이고 성공하길 바라냐 묻는다면, 대부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종종 행복보다 성공(돈)을 좇는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sup>103</sup>. 즉, 아이에게는 행복을 최우선 바라면서, 정작 본인은 돈 때문에 행복을 희생하는 아이러니를 꼬집은 것이죠. 이를 통해 독자 부모들에게 “아이에게 바라는 행복을 스스로도 추구하라, 본보기를 보여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sup>104</sup>.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니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당신이 세운 돈에 대한 철학이 아이에게도 영향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늘 돈 걱정에 전전긍긍하거나 돈자랑을 일삼으면, 아이는 돈을 두려움이나 허영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재무관(절약하되 필요할 땐 쓰는,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태도 등)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 가치를 내면화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하우절은 “부모의 행동과 말이 아이들에게 돈의 정의를 내려준다”는 점을 시사하며, **가정 내에서 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루는지** 한 번 점검해보라고 권합니다. 예컨대 돈 때문에 가족 간 다툼이 잣다면, 아이에겐 돈=스트레스라는 각인이 남을 수 있고, 매사 돈으로 보상하거나 벌주면 돈=사랑/가치라고 여길 수도 있죠. 그러므로 **돈 이야기를 가정에서 편안하고 건설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BookJelly 리뷰에서는 이 장의 구체적 언급이 많지 않았지만, 맥락상 “어떤 날카로운 진실들(timeless, slightly uncomfortable truths)” 중 언급된 “아이들을 노력 없이 부유하게 만들지 말라”는 부분 <sup>87</sup> 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하우절의 충언**을 잘 나타냅니다.

독자 반응을 보면, 부모 독자들에게 이 장이 실용적 지침이 됐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 용돈을 어떻게 줄까 고민이 많았는데, 필요한 만큼은 주되 전부는 안 주는 버핏의 말이 도움이 됐다” 했고, 또 다른 이는 “아이 대학등록금 마련에 너무 매달려왔는데, 정작 경제개념 교육은 못했다. 앞으로는 돈 쓰고 모으는 훈련을 함께 해야겠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활주로는 주되 궁전은 주지 말라”는 문구를 기억하겠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sup>86</sup>.

결국 이 장은, **부모로서 돈을 바라보는 철학이 자녀 세대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가족 단위의 재무철학**을 정립하도록 돕습니다. 하우절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과 가치관의 유산**이지, 돈 그 자체가 아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조(ancestor)가 되라**”, “**가족을 사랑하라**”는 그의 마지막 조언들 <sup>59</sup> 은 바로 이 장의 주제와 닳아있습니다. 돈은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가족의 행복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상기시키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17장. 스프레드시트는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Spreadshee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

17장 「스프레드시트는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는 제목부터 흥미롭습니다. 이는 재무적 계산과 인간의 감정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말인데요. 하우절은 이 장에서 돈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숫자를 무시하고 감정대로만 해서도 안 된다는 균형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즉, **이성적 재무계획과 실제 삶의 행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하우절은 우선 “숫자는 냉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엑셀 표)는 우리의 기분에 개의치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수치와 결과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4%를(은퇴자산 인출률) 같은 재무 공식은 감정이 아닌 통계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통계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 그는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정 결정에는 행복, 두려움, 불안, 만족감 같은 감정 요소가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순전히 계산상으로는 월세보다 집 사는 게 유리하지 않다고 해도,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을 중시하는 사람에겐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투자에서 손실 견디는 게 수익률에 좋다지만, 밤잠 설쳐가며 불안해할 정도라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감당 못할 전략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당신의 성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무 전략은 책상 위 이론일 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sup>105</sup>. 이는 **개인재무는 인격재무(personal)**라는 그의 일관된 견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숫자를 무시하면 곤란해진다**”고 경고합니다. 감정 따라 펑펑 쓰거나 두려움에 지나치게 움켜쥐는 등의 행동은 금방 재정 파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냉정하게 “당신,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야”라고 알려주는데, 기분 따라 무시해버리면 현실을 외면하는 꼴이지요. 따라서 **이성적 계산과 감정적 행복 간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하우절은 이를 “**미래를 위한 계획과 현재의 삶의 질 사이의 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sup>106</sup>. 이 역시 9장 위험과 후회의 연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말하길 당신은 은퇴 자금 충분하다 해도, 당신 스스로가 불안하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며, 반대로 당신이 계속 벌자고 욕심내도 숫자가 말하길 이젠 충분하다면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엑셀은 당신 마음을 몰라도, 당신은 엑셀을 알아야 한다”\*\*는 상호보완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장에서 하우절은 **재무 의사결정에 있어 정량(quantitative)과 정성(qualitative)**의 조화를 다양한 예로 설명합니다. 특히 은퇴나 큰 지출 같은 이벤트에서 이 갈등이 크게 나타나죠. 엑셀상으로 60까지 일하면 노후자금 충분해도, 정작 그 사람은 55에 지쳐 행복이 망가질 지경이라면 5년 일찍 은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그냥 “일 하기 싫어” 감정만 따라 45에 은퇴 선언하면, 수학적으로 파산할 수 있죠.

하우절이 자주 언급하는 개념 중에 “future independence today”라는 것이 있는데 <sup>75</sup>, 이는 **미래 독립을 위한 저축이 현재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즉, 엑셀에 보이는 저축액 수치는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감정을 돋는 면도 있고, 거꾸로 감정이 숫자를 견딜 힘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이 여행이 너무 소중해서 돈 들어도 안 아까워”라는 감정은 엑셀상 손해여도 가치 있는 지출을 합리화해 주고, 결과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만듭니다.

하우절은 그래서 “**좋은 재정 계획은 엑셀의 논리와 마음의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Minimize future regret** 원칙이 여기서도 유효하다고 강조합니다 <sup>72</sup>. 감정과 숫자 중 어느 하나만 쫓으면 후회가 클 것이고, 둘을 절충하면 후회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BookJelly 리뷰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지만, 맥락상 이 부분은 “**당신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좋은 삶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숫자만으로 포착 못하는 면)로 결정된다**” 등의 언급과 통해요 <sup>107</sup>. 특히 9장에서 하우절이 말한 “**So much of a good life is about what didn't happen**” <sup>107</sup> 는, 엑셀엔 나타나지 않지만 중요한 요소들(위기 피하기, 건강 유지 등)이 삶을 좌우한다는 뜻인데, 이는 단순 수치 너머의 현실을 강조한 것이죠.

독자들은 이 장에서 “**내 재정계획은 너무 딱딱했구나**” 혹은 “**나는 계산을 너무 무시했었구나**”를 깨닫곤 했습니다. 한 재무 담당자는 “고객들에게 늘 감정 배제하고 계획 따르라 했는데, 이젠 작은 사치나 행복비용도 계획에 넣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했고, 또 다른 이는 “난 늘 즉흥적으로 써서 문제였는데, 감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산표를 만들어볼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17장은 ‘**돈 관리 = 수치 + 심리**’임을 상기시킴으로써, 독자에게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재무 접근법을 권합니다. 재무제표는 차갑지만 삶은 따뜻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균형 잡는 곡예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우절은 “**매뉴얼대로만 살 순 없고, 그렇다고 매뉴얼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책의 후반부를 마무리해갑니다.

이제 남은 장들은 18장 “멋진 것들(The Finer Things)”, 19장 “탐욕과 두려움의 주기(The Lifecycle of Greed and Fear)”, 20장 “돈 쓰면서 불행해지는 법(How to Be Miserable Spending Money)”, 그리고 21장 “운이 좋을수록 더 친절해야 한다(The Luckier You Are the Nicer You Should Be)”로 이어집니다. 점점 결론부로 다가가면서, 앞서 다른 여러 주제들을 종합하고, 돈과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통찰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 18장. 멋진 것들 (The Finer Things)

18장 「멋진 것들」은 사치와 럭셔리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장입니다. 제목의 'Finer Things'는 흔히 고급스러운 물건이나 경험을 가리키는데, 하우절은 이 장에서 고급품이나 호화로운 생활의 실제 효용과 한계를 논의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사치품의 가치는 그것을 얼마나 드물게, 의식적으로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우선 “사람들이 흔히 비싼 것에서 오래 행복을 얻을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비싼 차, 명품 시계, 호화 저택 등은 생각보다 오래 기쁨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sup>108</sup>. 그는 “비싼 물건이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이나 자유로운 순간이 오래간다”고 말합니다 <sup>109</sup>. 이는 이미 3장 '행복한 사람들'에서 언급된 “트로피보다 경험과 평온이 오래간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sup>109</sup>.

그렇다면 고급품이나 특별한 호사는 무가치한가? 하우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간헐적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는 “대조의 힘(power of contrast)이 중요하다. 평소에 평범하게 살면, 가끔 특별한 것을 누릴 때 엄청난 감흥이 있지만, 반대로 늘 특별한 것만 누리면 그것마저 무덤덤해진다”고 설명합니다 <sup>71</sup>. 한마디로, 럭셔리를 일상화하면 그건 더 이상 럭셔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단순한 삶이 때론 럭셔리를 가장 강렬하게 즐기는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sup>110</sup>. 예컨대, 늘 캐비어와 샴페인을 먹는 사람에게 캐비어는 평범한 음식이지만, 계란밥 먹다 가끔 캐비어 맛보는 사람에겐 그 풍미가 대단하겠죠. 하우절은 “절제가 때론 최고의 향신료”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누리는 사치가 늘 누리는 사치보다 훨씬 감동적이다”라고 말하며, “일상에서는 수준을 낮춰라”고 권합니다 <sup>71</sup>. 이는 아이러니하지만 합리적입니다. “때때로의 '와우!'를 위해 평소엔 '괜찮아' 정도로 만족하라”는 전략이지요. 실제 부자들 중 소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다 필요할 때 광 쓰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방식이 사치품에 대한 신선함과 감사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멋진 것들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보다 개인적 효용에 있을 때 더 오래간다고 합니다. “효용(utility)이 주는 즐거움이 지위(status)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지속적이다” <sup>111</sup>는 8장 논의를 상기시키죠. 예컨대, 정말 좋은 원두 커피 맛을 즐겨서 비싼 커피머신을 샀다면 매일 행복이지만, 그냥 손님들 보여주려고 샀다면 금세 질립니다. 사치를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그 즐거움의 지속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이 장을 통해 “멋진 것들도 결국엔 익숙해지며,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족이 줄어든다”는 Hedonic adaptation 원리를 다시 환기시킵니다 <sup>71</sup>. 그래서 그는 “기대 관리”를 강조합니다: “기대치가 커지면 수입이 늘어도 행복은 안 늘어난다. 오히려 기대치를 낮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 <sup>112</sup>. 멋진 것들의 진정한 적은 '당연시여김'이니까요. 때때로 스스로 일부러 불편을 겪거나 (예: 캠핑 등) 질리지 않도록 멋진 것을 아껴라는 삶의 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BookJelly 리뷰에서는 “단순한 삶이 럭셔리 아이템을 즐기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sup>110</sup>와 “대조의 힘은 평범한 것들을 놀랍게 만들고, 특별한 것들을 멋지하게 만든다” <sup>71</sup>를 주요 통찰로 뽑았습니다. 리뷰어들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에 검소하게 지내면 가끔 좋은 식사나 여행이 정말 값진 추억으로 남는다”, “항상 최고급만 쓰던 친구가 이제 감흥을 못 느낀다고 할 때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는 식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우절이 “간소한 삶이 오히려 럭셔리를 더 짜릿하게 해준다(Simple life can be the most potent way to enjoy luxury items)” <sup>110</sup>고 한 문장은 독자들이 여러 번 공유했습니다. 현대 소비문화는 '항상 최고의 것을 누려라'고 압박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행복을 삭감할 수 있다는 점에 신선함을 느낀 것이죠.

결국 18장은 사치에 대한 철학적 균형 감각을 심어줍니다. “럭셔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누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독자가 있더라도, 이 조언을 듣고는 자신이나 아이들을 끝없는 사치에 노출시키기보다, 적절히 제한하며 의미있게 즐겨야겠다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부유한 독자는 이 부분을 읽고 “휴가 때만 퍼스트 클래스 타기로 하고, 평소 출장은 이코노미로 해볼까 생각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족여행 퍼스트 클래스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테니까”라고요. 또 중산층 독자는 “매주 비싼 외식하는 대신 한달에 한번 정말 가고싶던 레스토랑 가기로 배우자와 합의했다”고 했죠. 이런 변화들이 하우절 의도 일겁니다.

이제 남은 장들은 19장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 20장 '돈 쓰면서 불행해지는 법', 21장 '운이 좋을수록 친절해야 한다'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멋진 것들'에서 얻은 통찰은 다음 '탐욕과 두려움'에서 반복될 인간심리 패턴과 연관되고, 또 마지막 '운과 친절'로 이어지는 겸손의 메시지에도 밀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와 사치 앞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는 태도가 결국 운을 인식하고 친절히 베푸는 결말과도 연결되니 말입니다.

## 19장.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 (The Lifecycle of Greed and Fear)

19장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에서는 인간의 금전 심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룹니다. 하우절은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나타나는 패턴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이해해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먼저 탐욕과 두려움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주식시장의 사이클로 자주 언급되지만, 개인 재무나 소비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좋은 시절이 길어지면 탐욕이 생겨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나쁜 시절을 겪으면 두려움이 커져 지나치게 움츠린다”는 것이죠 <sup>77</sup>. 하우절은 이를 인생사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참 잘나갈 때 사람들은 자신이 무적이라 착각해 빛내 투자하거나 과소비를 하고(탐욕), 반대로 크게 한 번 실패하면 세상 끝난 듯 움츠러들어 기회도 놓치고 필요지출도 줄이는(두려움) 식입니다.

하우절은 특히 “탐욕은 한때 통했던 행동을 지속 불가능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분석합니다 <sup>77</sup>. 이 말은 성공했던 전략에 도취되어 그 한계를 모르고 질주하는 것이 곧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투자로 치면, 일찍이 몇 번 성공한 사람이 레버리지 확 늘려 베팅하다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밀어붙여 폭망하는 경우죠. 소비로 치면, 사업 잘되어 돈 벌리니 계속 초호화 생활 늘려갔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감당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탐욕은 자신의 공현을 과대평가하고 운의 부분을 간과하는 데서 오기도 합니다. “운 좋게 얻은 상승을 자기 실력이라 믿고 배전략을 쓰다” 실패하는 것이 대표입니다 <sup>77</sup>.

두려움에 대해 그는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이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나?'가 될 때 가장 해롭다”고 말합니다 <sup>113</sup>. 즉,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과거 실패 혹은 막연한 공포로 계속 새로운 걱정을 찾아내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금융위기 한 번 겪은 투자가 모든 투자를 끊고 현금만 쌓지만, 인플레 걱정에 현금도 불안해하고, 그러다 사회 불안 걱정으로 금 사들이고... 끝없는 걱정이 삶을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필요 이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회를 앗아간다는 것이죠.

하우절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면 “생각을 넓게, 길게 가져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흥망성쇠는 일시적이며, 좋은 시절이 영원할 수도 없고 나쁜 시절도 영속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up>114</sup> <sup>115</sup>.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도 “좋은 시절에 자만하지 말고, 나쁜 시절에 절망 말라”는 교훈을 자주 강조했죠. 이를 위해 운(luck)과 리스크(risk)가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sup>116</sup>. “사람들은 나쁜 때는 운 나쁘다고 여기면서도, 좋은 때는 자기 공이라고 여긴다. 이는 위험과 운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망각한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sup>117</sup>. 이 맥락은 마지막 장 'Luckier you are, nicer you should be'와도 맞닿습니다.

그는 성공이 영원할 듯 굴다가 자멸한 사례(예: 과잉 레버리지)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다 오히려 놓친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역사나 인물 예를 들진 않지만, 앞서 언급한 Crowhurst와 Moitessier, Vanderbilt 등 키워드에서 짐작 가능하듯, “과욕부리다 망한 사람과 두려움에 스스로 고립된 사람” 이야기들입니다 <sup>118</sup> <sup>119</sup>.

또, 하우절은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보다 살짝 위 계층을 바라보며 지속 불가능한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 한다”고 짚습니다 <sup>120</sup>. 이는 10장 Look At Them과 연결됩니다. 남들과 비교 (탐욕 요인)와 FOMO (두려움 요인)가 합쳐져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많죠. 예를 들어, 친구가 더 큰 집 샀다고 나도 무리하게 웅자받아 사고, 회사 동료 주식대박 소문에 나도 영끌하는 식. 비교에서 비롯된 탐욕과 두려움이 얼마나 순환하는지 알려주며, 여전히 핵심 처방은 “남 신경끄고, 자신만의 속도로, 지속 가능한 길을 가라”는 겁니다 <sup>51</sup>.

BookJelly 리뷰에서는 “Delayed gratification (미루는 만족)과 unwinnable status games (이길 수 없는 지위 게임)를 피하는 내용이 특히 좋았다”고 언급합니다 <sup>121</sup>. 이는 이 장의 핵심과 부합합니다. 탐욕=더 더 (지위 게임)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즉각적 만족이나 방어에 몰입하지 말며, 미래를 위해 때론 기다려라는 뜻이니까요.

또 리뷰가 좋아한 문장: “Status is a treadmill; you never get off, you just run faster” <sup>122</sup>. 지위 추구 자체가 탐욕과 두려움의 동력임을 보여주고, 빠져나오기 힘든 첫바퀴라고 비유한 대목입니다. 이는 “How to be miserable spending money” 장에서 이어질 논의(지위 게임의 무한경쟁)에 도입격 역할을 합니다.

독자들은 이 장에서 “아, 나도 사이클 속에 있었구나”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한 투자자는 “상승장에 과신해서 레버리지 썼다가 폭락하니 공포에 시장 떠났는데, 하우절 사이클 글 보면 꾸준히 하는 게 답이겠다 생각 바꿨다”고 했습니다. 소비 면에서도 “잘나갈 때 너무 평평 써서 나중에 짤짤맨 기억이 떠올랐다, 이젠 수입 변동에도 한결같이 살아야지”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국 19장은 자기 심리의 파도를 인지하고 평정심 유지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행운이 영원하지 않고, 불운도 지나간다. 그러니 자만도 절망도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남은 20장과 21장에서 결론적으로 강조될 키워드인 겸손과 친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 “행운이 클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주제가 확 드러날 텐데, 여기서 이미 복선이 깔렸습니다. 탐욕(겸손의 결여)이 파멸을 부르고, 두려움(자기 운 불신)은 성장 막는다는 논지를 통해, 겸손과 자신감의 미덕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20장 ‘돈 쓰며 불행해지는 법’에서는, 앞서 분석한 잘못된 돈 심리와 행태들을 총집약해 “이렇게 하면 확실히 불행해진다”는 형태로 정리할 것입니다. 19장에서 본 탐욕과 두려움도 당연히 그 목록에 포함되겠지요.

## 20장. 돈 쓰면서 불행해지는 법 (How to Be Miserable Spending Money)

20장 「돈 쓰면서 불행해지는 법」은 일종의 반어적 구성으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돈을 쓰면서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실패법칙을 나열합니다. 하우절은 앞 장들에서 강조한 원칙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돈 쓰는 방식들을 열거하며 경계합니다.

이 장은 문체나 접근이 약간 유머러스할 수 있지만, 내용은 매우 핵심적입니다. 하우절은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혹시 당신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되물으며, 깨달음을 촉구합니다.

주요 불행해지는 법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상 자기보다 잘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질투하기 <sup>123</sup>. “지속적으로 자신보다 나은 집단을 응시하며,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을 거라 가정한다.” 이는 앞서 10장 Look At Them과 직결됩니다. 남과 비교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으니 불행보증입니다.
2. 독립을 희생해서라도 지위(남들의 인정)를 좇기 <sup>120</sup> <sup>124</sup>. “지위쫓다 자유를 버려라.” 멋진 차 타고 다니지만 할 부금 갚느라 밤낮없이 일하는 식이죠. 5장과 11장에서 다룬 주제입니다: “남들 눈엔 부자, 실상은 노예.”

3. **버는 족족 쓰고 미래 대비 전혀 안 하기** <sup>51</sup>. “번 돈보다 더 써라, 저축 없이 지내라.” 이건 즉각적 쾌락은 있어도 곧 불안과 후폭풍이 오니, 불행을 예약합니다. 9장 Risk & Regret에서 절제 없는 삶의 후회와 연관.
4. **꾸준한 복리를 무시하고 단기적 스릴만 추구하기.** “조급히 부자 되려다 망하라.” Quiet Compounding과 반대 행동입니다. 이건 13장과 19장에서 경고한 “빠르게 부자되려다 오히려 더딘 길”이죠.
5. **자신이 돈벌며 이룬 것보다 소비품에 자존심 걸기** <sup>125</sup>. “소비로 자신을 뽐내라.” 안으로 실속 없이 겉치레만 추구하면 만족은 잠깐, 실망이 지속됩니다 <sup>55</sup>. 8장과 14장에서 지적된 행동입니다.
6. **두려움에 짤어 좋은 기회도 다 피하기** <sup>113</sup>. “새로운 건 다 무서워하라.” 19장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에 갇히면 현재도 미래도 망칩니다. 돈 써야 할 때도 못 써 건강이나 인간관계도 해칠 수 있죠.
7. **체면 때문에 감당 안 되는 지출 하기.**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라.” 예: 결혼식 남들보다 화려하게 해야 해서 빚내기. Social Debt(12장)의 전형입니다. 그 후 빚 갚느라 고통 -> 불행.
8. **운과 노력 구분 못하고 거만해지기.** “운 좋은 줄 모르고 내 실력만 믿고 더 큰 도박하라.” 19장 Greed & Fear에서 다른 함정입니다. 결국 크게 한 방 맞고 불행코스로.
9. **가족 등 중요한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기.** “가족행사 건너뛰고 일해라, 아이 대신 돈 벌어라.” 처음엔 돈이 해결해줄 것 같아도, 관계가 깨지며 장기 불행에 빠집니다. 16장 Your Kids, 그리고 17장 Feels vs Sheets에서 돈만 좋은 단점을 강조했죠.
10. **건강을 희생해서 돈 벌기.** “몸 상해도 일 더해라.” 짧은 기간엔 수입 증가, 그러나 병나면 행복은커녕 의료비 등 지출까지. 11장에서 “Health is wealth” <sup>126</sup> 라 했듯 건강 잃으면 모든 부질없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하우절은 실제 이 장에서 하나씩 조목조목 (아마 반어적으로 "첫째, 비교해라. 둘째, 지위에 목매라..." 식으로) 풀어나갔을 겁니다.

BookJelly 리뷰에서 'How to be miserable spending money' 관련 언급이 직접 없지만, 10장에서 "status treadmill"이나 13장의 "quietly compound, spend less"가 불행회피법이니, 그 반대가 곧 불행초래법이지요 <sup>122</sup> <sub>59</sub>.

실제로 하우절은 이 장 끝머리에 “Spend less than you make... No one is thinking about you as much as you are... Independence is wealth...” 등의 조언 리스트를 제시합니다 <sup>51</sup>. 이는 행복해지는 법인데, 제목은 불행해지는 법이니, 그것들 반대로 하면 불행해진다는 걸 암시합니다. 예컨대 “Spend less than you make”가 행복팁이면, 그 반대 “Spend more than you make”가 불행팁이겠죠.

독자들은 이 장을 아주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들이 여기 다 있네” 하며 웃프다는 반응도 있고, “완전 내 얘기”라며 반성 글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 SNS 리뷰엔 “모건 하우절이 ‘불행해지는 법’을 찢어줘서 내 행태 고치는데 도움됐다. 이제 남 비교 그만하고 내 삶에 집중할 것”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남들이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도 날 신경 안 쓴다”는 깨달음 <sup>59</sup> 이 불행회피에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건 곧 “불행해지려면 계속 남의 시선 의식하라”의 반대로 작용하는 지점이죠.

결국 20장은 전 장들 교훈의 총집합이며, 일종의 클라이맥스 직전 요약본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를 머릿속에 분명히 새깁니다. 그 준비가 되었으니, 마지막 21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인생 철학의 완결판으로 겸손과 친절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불행법칙의 반대, 즉 운에 감사하고 친절하게 사는 태도가 결국 돈과 삶의 궁극적 지혜라는 결론으로 이끕니다.

## 21장. 운이 좋을수록 더 친절해야 한다 (The Luckier You Are the Nicer You Should Be)

21장 「운이 좋을수록 더 친절해야 한다」는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으로, 겸손과 베풀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하우절은 마무리에서 자신이 앞서 논한 돈과 행복의 모든 교훈을 관통하는 핵심 규칙으로 이 문장을 내세웁니다: “운이 좋을수록, 즉 성공할수록 더욱 친절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는 이 규칙을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가장 넓은 보호망이라고 설명합니다 <sup>127</sup>. “아마도 자신을 지키는 가장 폭넓은 방법은 운이 좋을수록 더 친절해지는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sup>127</sup>. 이는 그의 블로그 글 제목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강조하는 인생 교훈입니다.

하우절은 먼저 성공과 운의 관계를 설파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엔 외부 요인(운)을 탓하지만, 좋은 일엔 자기 공을 과신한다. 그러나 좋은 행운도 일종의 운, 나쁜 행운과 똑같이 통제 밖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일깨웁니다 <sup>128</sup>. 성공은 실력과 노력뿐 아니라 시대, 환경, 우연의 요소가 겹쳐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장에서도 “Risk와 Luck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했죠 <sup>129</sup>.

이 깨달음이 왜 친절과 연결되느냐? 하우절은 “운이 좋았음을 자각하면 교만과 entitled함(특권의식)이 줄고, 겸손과 감사함이 생긴다”고 봅니다 <sup>127</sup> <sup>130</sup>. 그는 “운 좋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운 덕에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친절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sup>127</sup> <sup>130</sup>. 친절은 일종의 자동안정장치란 표현도 씁니다 <sup>131</sup>. 즉, 친절하고 겸손하면 운이 반대가 되었을 때(나쁜 시절)에도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형을 지킬 수 있고, 주변의 지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이 좋을 때 친절하라”는 규칙은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핀입니다 <sup>132</sup>. 운이 좋다고 거칠 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다보면, 운이 바뀌었을 때 견디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sup>133</sup>. 반면 잘나갈 때 베풀고 겸손했던 사람은 어려움 때도 주위 도움을 받으며 잘 넘깁니다. 이건 장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도 현명하지요. 하우절은 “친절함은 당신을 견제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단히 유지시킨다. 둘 다 운이 반전될 때 당신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sup>131</sup>.

그는 실제 예로 여러 부호들의 명언이나 행적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빌 게이츠가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앤드류 카네기가 “무덤에 부자로 가는 것은 수치”라고 말한 것 등. 우리가 찾은 블로그에서는 “성공하면 자신이 당연히 보상받았다 여겨 오만해진다. 그렇지만 행운이 돌아서면 그 오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게 된다”는 식으로 써 있습니다 <sup>134</sup>.

특히, “The nicer you are, the luckier you'll be”라는 말도 트위터 등에서 회자됐는데, 이는 “친절하면 그 자체로 좋은 인연과 기회가 쌓여 나중에 운처럼 돌아온다”는 반대 버전도 암시합니다 <sup>135</sup>. 하우절은 운과 친절의 상호작용까지 내다본 셈입니다.

BookJelly 리뷰에서는 마지막 장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Housel reminds us: 'Independence is wealth. Health is wealth. Aim to be a good ancestor. Love your family.'” <sup>59</sup>. 이 구절은 바로 마지막 챕터 메시지의 집약입니다. 운이 좋을수록 주변(가족, 후손)을 쟁기고, 건강과 독립을 잊지 말며, 결국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선조가 되라는 말이죠. 이는 곧 겸손과 이타심의 최종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결론을 매우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모건 하우절의 돈 철학은 겸손과 친절로 귀결되더라”, “돈을 벌었을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건 운이니 더욱 남에게 잘하라는 것, 새겨야겠다”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상당수 독자들이 이 문장을 명언으로 공유했고, 심지어 사무실 모토로 붙여놓았다는 사람도 있었죠.

또 “행운(성공)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부분이 여러 리뷰에서 언급됐습니다. “이 책 읽고 내가 누린 성공도 주변 도움과 운 덕이 컸음을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더 베풀어야겠다”는 식입니다. 돈과 삶에 대한 태도가 책을 통해 많이 유연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절은 아마도 “No one is thinking about you as much as you are” <sup>59</sup>로 시작한 조언들을 “Aim to be a good ancestor. Love your family.” <sup>126</sup>로 끝맺으며, 독자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었을 것입니다. 즉, 돈은 독립과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해야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며, 성공했다면 그 행운에 감사하여 가족과 사회에 친절함으로 돌려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돈 쓰기의 예술』은 심리, 철학, 실제 재무 지침이 망라된 여정을 마칩니다. 독자는 각 장을 통해 “돈을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돈을 쓰는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소 의외로 들릴지 모르나, 가장 근본적인 진리: 겸손, 감사, 친절로 수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풍요로운 삶의 예술의 정수인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 책 전반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돈은 행복을 살 수 있지만, 그 사용법은 사람마다 다르며 심리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에 맞게 돈을 쓰고, 과시보다 자유를 추구하며, 삶에서 진정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에 투자하라. 돈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의 이유(정보)를 이해하고, 지나친 탐욕과 두려움을 경계하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재정을 가꿔라. 그리고 운이 따라 성공했다면 더욱 겸손하게 주변에 선을 베풀라. 그것이 돈을 통해 얻은 행운을 진정한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길이다. <sup>127</sup> <sup>59</sup>

이러한 통찰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개인 재테크 열풍이 거센 사회에서, 모건 하우절의 인생 철학적 접근은 돈을 보는 눈을 한층 성숙하게 해줄 것입니다. 『돈 쓰기의 예술』을 통해 독자들은 스프레드시트와 감정, 부와 행복,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지혜롭게 균형 잡는 법을 배우고, 돈을 넘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법까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

#### 주요 참고문헌:

- Morgan Housel, The Art of Spending Money, 2025 (Portfolio) – 도서 본문 및 주요 개념 <sup>3</sup> <sup>28</sup> <sup>136</sup> <sup>51</sup> 등.
- Shameer KC, “The Art of Spending Money – Book Review,” Medium, 2025 – 도서의 주제와 인상적인 문장 인용 <sup>137</sup> <sup>138</sup> 등.
- Amitesh Jasrotia, “Book Review | The Art of Spending Money,” BookJelly, 2025 – 책의 강약점 및 핵심 문구 분석 <sup>5</sup> <sup>84</sup> 등.
- Morgan Housel 블로그, “The Luckier You Are The Nicer You Should Be,” Collaborative Fund, 2023 – 마지막 장 내용 관련 배경 <sup>127</sup> <sup>130</sup> .
- 기타 독자 후기 (Goodreads 등) 및 관련 서평 – 책에 대한 대중적 반응 참고.

<sup>103</sup> <sup>86</sup> <sup>55</sup> <sup>129</sup>

---

1 5 7 8 22 42 47 53 66 78 79 83 84 85 86 87 88 91 92 105 106 107 121 122 Book Review | The Art of Spending Money - BookJelly

<https://bookjelly.com/the-art-of-spending-money-book-review/>

2 6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5 37 38 39 40 41 43 44 45 46 48 49 50 51 52 54  
55 56 58 59 60 61 62 63 64 65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0 81 82 89 90 93 95 96  
97 98 99 101 102 108 109 110 111 112 113 120 123 124 125 126 136 137 138 The Art of Spending Money –

Book Review: Simple Choices for a Richer Life | by Shameer KC | Nov, 2025 | Medium

<https://shameerkc.medium.com/the-art-of-spending-money-book-review-simple-choices-for-a-richer-life-429ecb1f569e>

3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94 100 103 104 EXTRACT |‘The Art of Spending Money’ by Morgan Housel

<https://www.sundaytimes.timeslive.co.za/lifestyle/2025-10-31-extract-the-art-of-spending-money-by-morgan-housel/>

4 9 10 11 Book Review — “The Art of Spending Money” by Morgan Housel | by 'Tosin Adeoti | Measured Voices | Oct, 2025 | Medium

<https://medium.com/measured-voices/book-review-the-art-of-spending-money-by-morgan-housel-9d1e62663680>

34 36 136. The Art of Spending Money: Morgan Housel Book Review - Inside Out Money

<https://www.insideoutmoney.org/136-the-art-of-spending-money-morgan-housel-book-review/>

57 Spending money to show people how much money you have is a ...

[https://www.threads.com/@readingwithdivya/post/DQUL\\_sdARaQ/spending-money-to-show-people-how-much-money-you-have-is-a-fast-way-to-go-broke-](https://www.threads.com/@readingwithdivya/post/DQUL_sdARaQ/spending-money-to-show-people-how-much-money-you-have-is-a-fast-way-to-go-broke-)

114 115 116 117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The Luckier You Are The Nicer You Should Be · Collaborative Fund

<https://collabfund.com/blog/the-luckier-you-are-the-nicer-you-should-be/>

118 119 Summary of Morgan Housel's The Art of Spending Money - Milkyway Media - Google Livros

[https://books.google.com.br/books/about/Summary\\_of\\_Morgan\\_Housel\\_s\\_The\\_Art\\_of\\_Sp.html?id=sVyVEQAAQBAJ&redir\\_esc=y](https://books.google.com.br/books/about/Summary_of_Morgan_Housel_s_The_Art_of_Sp.html?id=sVyVEQAAQBAJ&redir_esc=y)

135 30 Rules from Morgan Housel - Goforgrowthco

<https://www.goforgrowth.co/p/30-rules-from-morgan-housel>